



# 아파트 시장 아직 한겨울

## 2차 보금자리·유럽위기 여파...하락폭은 진정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낙폭이 컸던 탓에 하락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시장이 공공얼어붙은 것은 2차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에 들어갔고 유로존 금융위기가 매매심리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주(5월1~7일)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은 서울 -0.08%, 신도시 -0.08%, 수도권 -0.08%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과 신도시는 전주의 -0.11%, -0.10%에서 하락폭이 조금 줄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32% 떨어지는 등 전주(-0.47%)보다 하락세가 둔화했기 때문에 분석된다. 송파(-0.42%), 강동(-0.41%), 서초(-0.41%)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도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단지외 일반아파트를 합한 아파트 매매가는 강동(-0.18%), 강북(-0.15%), 서초(-0.15%), 송파(-0.13%), 강남(-

0.09%), 노원(-0.09%) 순으로 많이 내렸다.

신도시는 평촌(-0.19%), 일산(-0.11%), 중동(-0.06%), 분당(-0.05%) 순으로 내림세가 강했다. 평촌과 일산은 각각 소형 저가매물과 공급이 많아 내림폭이 컸다. 수도권에선 매수세가 실종된 과천(-0.40%)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안성(-0.26%), 오산(-0.23%), 고양·광명(각 -0.17%), 의정부(-0.15%), 용인(-0.14%), 부천(-0.13%) 순으로 내림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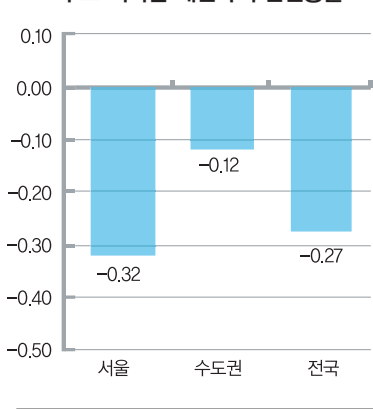
전세가는 서울(0.01%), 신도시(0.04%), 수도권(0.03%)에서 모두 올랐지만, 가격 변동폭은 대체로 미미했다.

서울에선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강 이북 지역이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0.09%), 분당(0.04%), 산본(0.03%), 평촌(0.02%), 일산(0.01%) 순으로 많이 올랐고, 수도권에서는 광명(0.48%), 성남(0.27%), 안양(0.19%), 의왕(0.15%), 수원(0.13%)이 상승했다.

김지나 기자 kjin@

주요 지역별 재건축 주간변동률



### 포스코 對 롯데 '대우인터' 누구 손에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지난 7일 마감된 가운데 포스코와 롯데그룹이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두 대기업의 본선 게임이 막을났다.

자금여력과 인수 의지, 인수 후 시너지 효과 등에서 경쟁사인 롯데보다 포스코가 다소 우위에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대형 인수합병(M&A)을 잇따라 성공한 경험이 있는 롯데그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입찰의 성패는 우선 가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채권단이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68.15%를 모두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에선 양측 모두 3조5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수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금액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액면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안경주 기자 ahnkj@

# 쌍용차 오늘 매각공고...내달 초 예비후보 선정

## 인수가 3500억 안팎 추정, 인수후보 속속 등장할 듯

쌍용자동차가 10일 기업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인수자 물색에 나선다.

3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인수가격은 자동차 회사로서는 비교적 싼 편, 때문에 쌍용차를 노리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9일 관련 M&A업계에 따르면 오늘 쌍용차의 매각공고가 나오면 이달 말 인수 후보기업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달 4일께 예비실사 적격 대상기업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쌍용차 매각주관사인 삼정 KPMG는 매각공고후 오는 28일 까지 액쿼리증권을 통해 인수 참여의사 기업들의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받는다. 삼정 KPMG 측은 인수의향을 밝힌 기업에 한해 쌍용차의 기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정보는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실사 적격 기업은 6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자체적으로 쌍용차에 대한 예비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사가 끝나면 7월

20일까지 쌍용차의 인수희망 가격을 표시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을 감안해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한 본격 계약 체결은 이르면 8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쌍용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슬림한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디젤 엔진 기술이 현대기아차에 뒤지지 않고 수출전망도 밝은 편이어서 인수희망 기업이 적지 않

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공언해 온 "유력한 인수대상은 자동차 관련 기업"이라는 말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발인 이후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가 거론되면서 다국적 기업 '마그나'를 비롯한 몇몇 부품기업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인 국내 기업으로는 대우버스의 대주주인 영안모자와 남선일 미늄을 자회사로 둔 SM그룹 등이다. 지난해에는 사모투자펀드인 '서울인베스트'가 인수의향을 밝힌 바 있다.

# 좋은 보스의 8가지 특징

### 정확한 평가와 아량 갖춰야

직장인이라면 여러 유형의 보스를 만나게 마련이다. 좋은 보스도 있지만 나쁜 보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좋은 보스의 특징은 무엇일까.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최근 운이 좋으면 훌륭한 인품을 지닌 보스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좋은 보스의 8가지 특징을 소개했다.

우선 좋은 보스라면 부하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좋은 보스는 직원이 특히 일을 잘하는 분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을 전반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보스는 직원을 옹호할 줄 아는 아량이 가지고 있다. 직장 보스의 상사나 다른 회사의 보스가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 훌륭한 보스라면 이에 개인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만약 일년에 한번도 휴가를 갖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주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 자료가 필요하면 그것을 구해주기도 한다. 좋은 보스는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않는다. 보스는 문제 발생시

### 좋은 보스의 특징

1. 부하직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
2. 부하직원을 감싸안는 아량
3. 어려운 결정에 적극적 대처
4. 현명한 팀 운영
5. 아침과 실력의 구별
6. 도전적이며 합리적
7. 자유로운 의사표현 환경 조성
8. 당근과 채찍의 유연한 사용

힘든 대화도 마다하지 않고 이를 기꺼이 해결하려고 한다. 현명한 보스는 팀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도 알고 있다. 일을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직원 한명을 더 고용하거나 무능한 보조자로 대체하는 등 무모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훌륭한 인품을 지닌 보스는 올바른 판단의 소유자로 친한 친구나 아첨쟁이가 아닌 일을 잘하는 직원을 좋아한다.

좋은 보스는 아울러 도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면을 중시한다. 직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말 내내 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훌륭한 보스는 정직한 직원이 잘 못된 점을 언제든 지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 물류대란 이달 15일께 분수령

## 철도노조·화물연대 운송제도 개선 안하면 무기한 파업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잇단 파업 소식에 물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최근 확대쟁대를 열고 단체협약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측의 성실 교섭을 주장하며 7일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지역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작업 규정 지키기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 관계자들은 총 170개 조합 중 120개 조합에서 공사와 노조

가 대립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극적인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 역시 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4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15일 화물운송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일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및 화물운송제도개선 등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화물연대 측은 철도노

조와의 연대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와 육상 운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두 단체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물 운송의 경우 물류비중은 2008년 기준 도로를 통한 육상 운송 76.2%·철도 6.4%·해운 7.4%·항공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의 경우 육상 운송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등 육상운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철도가 대체 운송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심홍수 기자 shs@

# 채권전문가 99% "기준금리 동결 예상"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채권을 갖고 있거나 채권을 운용하는 185개 기관의 채권시장 전문가 221명을 상대로 '5월 채권시장 지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4%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6~9월에는 응답자의 100%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고, 10월에는 91.2%, 11월에는 88.7%, 12월에는 98.6%, 1월에는 91.3%, 2월에는 87.7%, 3월에는 93.9%, 4월에는 99.4%가 동결을 내다봐 동결 전망은 16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투데이 漫評** 유영수  
(yoobil@hanmail.net)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대표이사·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서성환 인쇄인 고광현 편집국장 김중현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4 태양빌딩 9F  
대표전화 : (02)784-1002 팩스 : (02)784-1003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10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99  
구독료 : 1부 1500원, 한달 6000원

경영부 (02)799-2615    신장부 (02)799-2620    금융부 (02)799-2625  
건설부 (02)799-2630    국제부 (02)799-2635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경제부 (02)799-2645    엔터테인먼트부 (02)799-2650    사보부 (02)799-2655

KAIST / Gamma-Ray Golf Ball

감마로닷컴 [gammara.com](http://gammara.com)

# 왜! 아토미스트 골프볼이 주목 받는가?

이유는? 카이스트 기술로 탄생한 골프과학, 감마선(gamma-ray)조사 골프공 이기 때문

## 비거리 20% 증가! 방향성 개선! 부드러운 타구감!

BEFORE

AFTER

골프볼의 분자 구조가 감마선 조사후 균일하게 형성되어 탄성 증가 및 방향성이 개선됩니다.

CORE  
COVER  
INNER LAYER

- 아토미스트 감마볼은 특허로 등록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골프볼입니다.
- 또한 USGA, R&A기관에서 공인 인증된 최고의 골프볼입니다.
- 또하나의 감마볼 로스트 감마볼(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던롭, 테일러메이드, 나이키 등)

**ATOVISIO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15-20 아토티비전 1층 | 031-723-5874 | [www.atovision.com](http://www.atovision.com)

# 유럽 재정위기...글로벌 금융시장 초토화

주가·환율·유가 휘청...1990년대 초 위기보다 심각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 위기 사태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4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신종플루에 빗대 '유럽 플루(europan flu)'라는 평가가 출현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오렌하이머에셋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벨스키 수석 투자전략가는 "지금은 마치 지난 1997년과 1998년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은 초강세장에서 초약세장 분위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듯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 트레이더의 주문 실수로 인한 헤프닝으로 바닥을 잡고 있지만 시장이 그만큼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프랭크 잉가라 헤네시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직접적인 특별한 악재 없이 불투명이 이처럼 폭락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불합리한 알고리즘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리스의 재정긴축 프로그램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호재는커녕 악재로 뉴욕증시를 강타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재정긴축 프로그램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

긴축안에는 재정적자를 오는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수입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3.8%에 달했다.

그러나 긴축안에 대해 국민들의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그리스 노조가 폭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그리스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WSJ에 따르면 2013년 그리스 부채는 3600억유로, GDP의 15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율을 6%로 가질 경우 이자 지출은 GDP 9%와 정부세수의 25%를 지출해야 한다.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10% 가까이 폭락했고 나스닥과 S&P500 지수 모두 200포인트와 100포인트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에 휘몰아친 투매가 한 트레이더의 실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불안한 시장심리가 폭락의 배경이라는 것에는 반론이 없는 상태다.

당국에 따르면 한 트레이더가 다우지수 편입종목인 P&G 주식을 거래하면서 100만(million)으로 표기해야 할 것을 10억(billion)으로 잘못 표기해 주가 폭락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셋티그룹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서 6일(현지시간) 주가가 폭락하자 한 트레이더가 걱정스러운 듯 단말기를 바라보고 있다. **〈출처=bloomberg〉**

몇몇 종목에 대한 거래 실수로 전체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버트 화이트 IPL파이낸셜 최고 투자전략가(CIO)는 "패닉에 따른 매도세가 펼쳐졌다"면서 "유럽의 상황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막고 신용시장을 얼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플루 사태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뒤흔들고 있다. 유로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화 대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인 1.5%의 낙폭을 기록하며 1.26달러대로 떨어졌다.

유로/달러 환율이 1.26달러대로 추락한 것은 14개월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가 유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핀코 공동 최고경

영자(CEO)는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가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서 "미국 역시 전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금융위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비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전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엘-에리언 CEO는 "부채가 한 나라에서 전세계로 확산되는 전달 장치"라면서 "매우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 대기업 투자 코스닥 '득인가 실인가'

단기적 주가 상승효과...기대감 先반영 투자 유의

대기업들의 코스닥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해당 코스닥기업들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해 전장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스닥기업의 매출도 해당 대기업들의 매출호조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이 같은 코스닥기업 사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대기업 투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를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LG디스플레이가 투자한 티엘아이는 지난 2008년 5월 LG디스플레이가 투자했을 당시 주가는 1만 7850원으로 올해 5월6일 현재까지 30%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LG디스플레이가 주당 2110원에 지분을 사들였던 에이디피엔지니어링은 1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아바코 역시 신주발행가 3030원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코스닥기업들의 주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투자한 에이테크솔루션의 주가는 30%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에 투자한 신화인터텍도 15% 가량 올랐다. 올해 들어서 투자한 아이피에스는 투자전보다 2배가량 급상승했다.

POSCO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무서운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9030원부터 1만 4000원까지 약 45%가량 급등했다. 서울반도체 역시 16% 상승했다. 이들 코스닥기업들의 주가부진은 물론이고 실적부진 또한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에이테크솔루션은 삼성전자에 금형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74억원, 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63% 증가했다.

또한 신화인터텍의 1분기 실적은 단기인하와 신제품 출시과정에 따른 일시적 수율 하락 등으로 시장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분기부터는 빠르게 호전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1156억원, 1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 대기업 코스닥 업체 투자 현황

구분	코스닥 업체명	지분비율
삼성전자	에이테크솔루션	15.9% 지분획득(유상증자)
	신화인터텍	3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투자
	아이피에스	200억원 전환사채(CB)투자
LG디스플레이	에이디피엔지니어링	12.93% 지분획득(유상증자)
	아바코	19.9% 지분획득(유상증자)
POSCO	티엘아이	13% 지분취득(유상증자)
	실리콘화일	지분 40.6%(유상증자 및 장외매수)
	피델릭스	10% 지분취득(유상증자)
하이닉스	성진지오텍	40% 지분취득(인수, 최대주주)
	서울반도체	1.01% 지분취득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동부생명

"당신에게 준비된 미래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내 삶의 희망이 되는 보험



## ■美증시 올여름 투자전략

### 유럽 악재에도 이달 매도 신중해야

유럽발 악재로 글로벌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주요 증시는 이미 올해 들어 오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상태다.

여름장세에 훌륭히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시장후퇴에 대비해 여름에 주식을 모두 매도해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놓쳤던 바이론 실수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많다.

5월 매도후 시장철수 전략을 택했던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가 올해 초까지 지속한 상승행진에서 소외됐다. 이 기간 S&P500지수의 상승폭 17%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이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최근 투자자들이 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올 여름 최고의 투자전략을 소개했다.

사실 '5월 매도' 전략은 수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증시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에 비해 떨어지는 실적을 나타냈다. S&P지수는 1928년 이후 5~10월 사이에 1.9% 상승에 그친 반면 나머지 기간에는 5.1%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5~10월 1.4% 올랐고 11~4월에는 6.4%를 기록해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다.

전문가들은 전체 지수에 집착하는 투자자들은 시장 트랜

드의 변화에 따라 자금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특정한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S&P의 섀 스톱발 선임 투자 전략가는 "만약 투자자들이 11월부터 4월까지 S&P지수 연계 상품에 투자하고 5~10월은 필수소비재 업종 및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0.8%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S&P지수 연계상품에만 투자한 투자자는 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톱발은 "과거에 통했던 전략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만약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너무 오래 지속돼 곧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반기별 로테이션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에버메이 자산관리의 베스라는 책임자는 "우리는 5월 매도 전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소비재 업종은 지난달까지 올해 19%나 주가가 상승해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필수소비재 업종 및 금융서비스 업종이 유망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라스 책임자는 또 "가장 큰 위험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매도 및 매수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주가가 장기 목표에 비해 저평가됐다면 그 때가 매수에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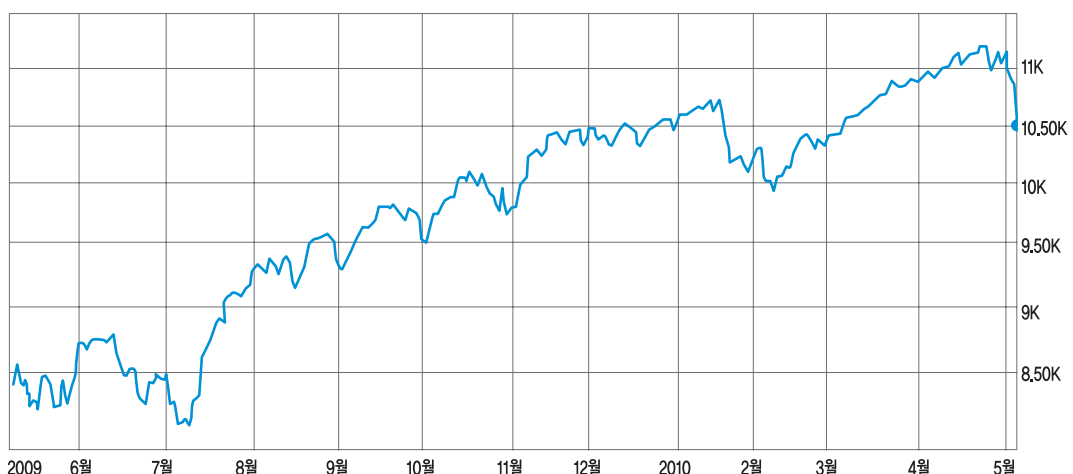
샌더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에밀리 샌더스 회장은 "롱포지션(매입)과 숏 포지션(매도)을 골고루 선택하면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음선 프리미엄은 현재 주식시장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나 여전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M.D. 크레쉬 파이낸셜 서비스의 마이클 크레쉬 회장은 "우리 회사의 고객들은 은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화 보를 위해 일부 포지션에서 빠져나왔지만 전체 지분을 매도하는 5월 매도 전략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이후로 10% 이상의 조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실질 주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굳건하다면 공격적인 매수세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최근 1년간 다우지수 추이



# 日도 '유럽 재정플루' 式 사태 초비상

## 세수 17% 감소한 29조엔 27년전 수준...인프라 민간에 매각 추진

유럽이 재정위기 사태로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재원 마련을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일본 재무성은 6일(현지시간) 2009년도 세수가 27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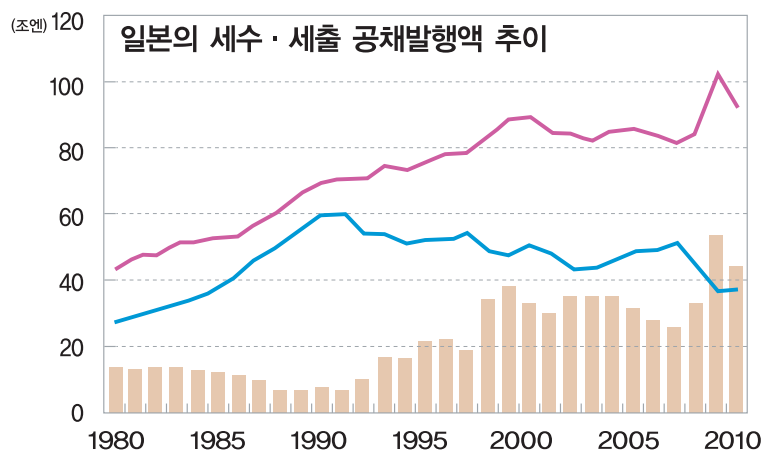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3월 마감한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수는 전년보다 17.2% 감소한 28조9681억엔(약 366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세수는 10조9910억엔으로 12조8000억엔을 기록한 1982년 이래 27년 만에 13조엔을 밑돌 전망이다.

세수가 이처럼 뚝 떨어진 것은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무성은 금융 위기의 여파로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63.7% 급감한 2조4018억엔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기침체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세수는 5% 감소한 6조9673억엔이다.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17.6%에 달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세수까지 감소하자 걱정의 소



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도요대학의 네모토 유지 교수는 "향후 50년간 인프라 정비에 드는 비용은 312조엔에 달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의 재정이 모두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민간이 나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일본 정부는 인프라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일본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재무성이 공동으로 공학·철도 등 공공 인프라 정비와 운영에 민간 자금과 경영 방식을 실리는 '민간자금구상(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PFI법을 개정해 고정자산세 등에 대한 세제우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를 정비, 관리, 운영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업운영권을 새로 만들어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니가타식 PFI'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새로운 PFI 도입으로 매각 수입을 얻게 되는 한편 민간 사업자는 공공시설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세 납부 부담이 없다.

또 사업운영권은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아니라 정부가 보증한 사업운영권을 따내기 때문에 자금 조달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1999년 영국식 PFI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을 합쳐 작년 말까지 총 366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6월에 내놓을 신성장전략에 포함된다.

일본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처럼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국제 대부분을 일본 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대외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는 낮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출로 국제 발행과 부채가 증가할 경우 사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일본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디스플레이로

실질적인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큰 부담이어서 내수가 국채를 커버하는 것도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민태성의 글로벌포커스

# 흑사병과 재정플루

필헬레네(philhellene). '그리스를 좋아하는' 또는 '그리스 애호자'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필헬레네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헬레노필레(hellenophile). 필헬레네와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헬레노필레가 그리스 문학이나 예술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경의가 아닌,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광기라고 말한다.

헬레노필레는 그리스인들이 과학을 발명했다거나 진짜 과학은 그리스에서 시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같은 발상은 서양인들은 물론 아시아인 등 비서구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

헬레노필레는 자국 문화의 우수성보다 그리스 문명에 대한 동경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

종종 서구적 오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추종과는 다소 다르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헬레노필레가 문화적인 면에서의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피상적인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머리에 침투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와 옛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다. 전염병은 백신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지만 이는 백신이 개발됐을 때 얘기다.

전염병 중에서도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악몽 그 이상이었다. 당시 전세계에서 7500만명이 죽고 유럽에서만 25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전염병이 광궤할 때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속수무책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겨울 전세계를 휩쓴 신종플루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신종플루의 파괴력은 대단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텅 비었고 다른 사람이 재채기하

는 것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네이팜처럼 증시는 물론 외환, 채권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종플루를 접할 때처럼 유럽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그리스 사태를 두고 '유럽 플루(european flu)'가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신종플루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는 그리스 악재가 유럽을 건너 전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흑사병과 신종플루, 그리고 재정플루, 시대가 다르고 매개체가 다르지만 같은 전염병처럼 느껴질 정도로 작금의 상황은 심각하다. 흑사병과 신종플루 백신은 제약회사가

만드는데, 재정플루 백신은 누가 만든단 말인가.

(국제부장) tsmim@

# 英 보수당 13년만에 정권 탈환

## 연정 출범 또는 소수당 내각 구성...불확실성 지속될 듯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13년만에 노동당을 밀어내고 제1당으로 등극하며 정권을 탈환했다.

6일 오후 10시(현지시간)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된 BBC, SKY, ITV 등 3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석수는 보수당 305석, 노동당 255석, 자유민주당 61석, 기타 29석을 얻었다.

보수당은 기존 210석에서 95석이 증가해 원내 다수당에 오른 반면 노동당은 349석에서 94석이 감소해 제2당으로 밀려났다.

지민당은 사상 처음 실시된 TV 토론을 통해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62석에서 61석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집계돼 기존의 보수당-노동당 양당 중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보수당은 과반에 약간 모자라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일단 4기 연속 단독 집권한 노동당을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당제의 뿌리가 깊은 영국에서는 대부분 총선 때마다 노동당 또는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아왔다.

노동당은 지난 1997년 선거에서 토니 블러어 당수가 43.2% 득표율로 419석을 장악해 보수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했고 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 잇따라 각각 413석, 356석을 차지해 제1당 자리를 확고히 해왔다.

그러나 장기집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제심리가 작용하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가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져 노동당은 제2당으로 추락했다.

출구조사 결과 노동당과 지민당이 의석을 합해도 316석으로 과반에 미달해 사실상 보수당으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보수당은 그러나 의석수가 과반에 미달해 지민당과 연립정부를



6일(현지시간) 영국 총선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가 부인과 함께 자신의 선거구인 옥스포드셔 워트니에 위치한 투표소를 떠나고 있다.

구성하거나 소수당 내각을 구성해 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보수당이 13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게 된 배경은 노동당의 장기 집권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심리적 요인,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에 막판 보수당으로 표가 결집하는 양상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7년 이후 4기 연속 집권한 노동당의 블러어 총리가 이라크전 개전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중도 사임하고 2007년 6월 브라운 당시 재무장관이 총리에 오르면서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40%를 넘기도 했다.

이후 브라운 총리의 과묵한 스타일과 국민과의 소통 부족, 당내 블러어파의 도전에 따른 지도력 위기 등으로 노동당의 지지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8년 5월 정당별 지지도는 보수당 49%, 노동당 23%, 지민당 17%

로 보수당이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랙스톤과 TPG, THL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도이체뱅크와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LBO를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로이 터통신은 JP모건과 씨티그룹, BOA가 인수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피델리티 인수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랙스톤과 TPG, THL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도이체뱅크와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LBO를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로이 터통신은 JP모건과 씨티그룹, BOA가 인수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피델리티 인수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배수경 기자 sue6870@

# 사모펀드 LBO 기지개...3사, 피델리티 인수 추진

금융위기 촉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대규모 차입매수(LBO)가 율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블랙스톤과 TPG캐피탈, 토머스 H. 리파트너스(THL) 등 대형 사모펀드들이 결제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인수에 나섰다

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인수가 성공할 경우 금융 위기 이후 거의 3년 만에 이뤄지는 대형 차

입매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시가총액 110억달러에 달하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수는 블랙스톤과 THL이 먼저 추진했으며 TPG가 나중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THL은 이미 피델리티 내셔널의 지분 4%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주주는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워버그 핀커스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피델리티 인수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입매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시가총액 110억달러에 달하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수는 블랙스톤과 THL이 먼저 추진했으며 TPG가 나중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THL은 이미 피델리티 내셔널의 지분 4%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주주는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워버그 핀커스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피델리티 인수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배수경 기자 sue6870@

Create & Challenge SK C&C

## 함께해요 행복한 IT세상

상상하세요! 당신이 꿈꾸는 미래 -  
유비쿼터스 세상 속에선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SK C&C가 고객과 함께 행복한 IT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p><b>Consult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전략컨설팅, IT/FA/ERP/CRM/BI/ROI</li> <li>Solution 기반컨설팅, DW/CRM, EPM, BSC/SEM, BPM/ITIL, DDM</li> <li>Business Consulting(공공/금융/통신/제조)</li> <li>Outsourcing/ITSM Consulting</li> </ul>	<p><b>S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dustry Solution (공공/금융/통신/제조/물류/서비스/유통/제조/교육) • Business Intelligence</li> <li>ERP, KM, DM, CRM • Specialized Solution (GIS, ITS, DAS, CIM, TETRA) • 무선통신 분야 서비스 개발 • Network Integration</li> <li>Global Solution 개발 &amp; Delivery</li> </ul>	<p><b>IT Outsourc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ata Center Service/Network Service/ISAC Service • Application/ITIL/Management</li> <li>Distributed System Service/Desktop Service</li> <li>Business Continuity Planning/Disaster Service</li> <li>ITO 전략/연립 서비스 • IT 교육</li> </ul>	<p><b>Future Busi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Br (RFID/USN, Smart Card, Embedded SW, Telematics, LBS, Web Service)</li> <li>u-City, u-Health, u-Fashion</li> <li>u-Campus, u-Life • u-Contents</li> </ul>
---	---	---	--

www.skcc.co.kr

# 달러 대반격 시작된다...연말 100엔대

### 기술적·캐리트레이드 동향 달러 강세 반영

달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달러가 엔을 비롯한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지속하는 등 대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달러에 대한 매수확산을 점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는 금융위기 사태가 본격화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통신은 이치모쿠(ichimoku) 기술적 분석상 달러가 엔화 대비 17%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목균형표를 뜻하는 이치모쿠 분석은 시세 형성 과정을 반영한 파동론과 수순론, 시간론의 세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법이다.

최근 바를레이스캐피탈에 따르면 주간 이치모쿠 분석에서 달러 가치는 2개월 연속 엔화에 대해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단 코틱 기술적 분석가는

"달러는 엔화 대비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면서 "달러/엔 환율의 21개월 이동평균선은 94.76 엔"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기술적인 흐름은 지난 25년간 1~3년 동안의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라면서 "95엔 이상은 110엔 선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달러는 엔화 대비 지난달 0.5% 상승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연말 100엔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110엔대를 웃돈 것은 지난 2008년 8월25일이 마지막이었다.

캐리트레이드를 통한 이익이 각국 기준금리차 축소 전망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로얄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에 따르면 저금리 지역에서 자금을 마련해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트레이드 지수는 지난 1분기 0.57%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승

폭 9.8%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큰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목표금리가 0.00~0.25%를 기록하며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을 이어갔던 것이 사실. 그러나 캐리트레이드가 축소되면서 달러 가치는 지난 6개월간 유로 대비 12% 급등했다.

지난 1년간 달러 가치는 브라질 레알과 뉴질랜드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에 대해서는 무려 30% 치솟았다.

이들 국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속했지만 통화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이 외환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경우 미국 국제 등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해외자본 유입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경상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캐리트레이드 수요와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관련 글로벌 중앙은행의 행보 역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위기를 맞아 지난 2008년 일제히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시행과 함께 이들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연준 역시 연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선물은 오는 11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56% 반영하고 있다.

민태성 기자 tsmn@

# 유로화 붕괴 현실화

### 유로/달러 연내 1.24달러 갈 수도

구제금융 지원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그리스 사태가 재점화되면서 유로화 전망은 불안하기만 하다. 시장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진정되기에는 커녕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유로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붕괴 전망까지 제시되면서 유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에 걸쳐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것에 합의했다.

그리스를 포함한 16개 유로존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그리스·유로존·IMF 구제금융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16개국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그리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자금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을 헤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가 합의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 EU이사회 결정으로 공식 채택된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위임을 받아 그리스 정부와 구제금융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19일 이전에 유로존이 약속한 3년 지원 규모 800억유로 가운데 1차 연도

지원분 300억유로의 일부, 또는 전액인 그리스에 전해진다.

문제는 앞으로 3년간 300억유로 규모의 예산절감안을 마련한 그리스 정부의 초긴축 정책의 시행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리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단체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정부의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대해 총파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뿌리깊은 탈세와 부패 문화 역시 재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탈세 규모는 230억유로 달한다. 그리스 정부가 뼈를 깎는 긴축을 약속했지만 부패가 만연하고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구제금융 합의에도 유로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닥터풀'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 박사는 "유로는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그리스의 뒤를 이어) 다른 약세가 돌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립 위 DBS그룹홀딩스 이코노



유럽 재정위기 사태로 유로화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사진은 유럽중앙은행(ECB) 전경

미스트는 "구제금융 패키지는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그리스의 구조조정을 가속할 것이며 유로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와 유럽의 리먼브라더스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로빈 마셜 스미스 엔위립먼트에셋매니지먼트 채권담당 책임자는 "그리스는 재정위기 사태의 리먼브라더스"라면서 "1000억유로 규모의 지원이 그리스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수출업체에서 유로의 약세 예상은 심각한 정도다.

로날드 레벤 모건스탠리 선임 외환 투자전략가는 "달러/엔 환율이 연말 109엔까지 상승하고 유로/달러 환율은 1.24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운선 기자 stop1020@

# 중 위안화 상반기 절상 가능성

### 인플레이션 압력·핫머니 유입등 변수 많아 늦어질 수도

중국이 올해 1분기 12%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며 따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시기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지역보다 빠른 자본의 과잉유입으로 인한 자산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특히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위안화절상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머징 국가인 인도와 브라질이 최근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도 중국의 위안화절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브라질도 지난달 19개월만에 금리를 9.5%로 올렸다.

중국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중국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조만간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예측해 아시아 몇몇 국가는 통화를 절상했고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단기차익을 노리는 핫머니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중국으로 유입된 핫머니는 1월 56억달러(약 6조2244억원), 2월 57억달러에서 3월에는 205억달러로 급증했다.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올해 4분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단기자본의 유입도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영국의 스탠더드차터드(SC)은행은 중국이 상하이 엑스포에 맞춰 5월부터 위안화 절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 중국법인의 왕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 3분기 초나 여름에 위안화가 1차로 2~3% 절상되고 점진적으로 추가절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환율이 4~5% 하락해 2011년 말이면 달러당 6.17위안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부펀드 운영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의 대량 유입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5~6월경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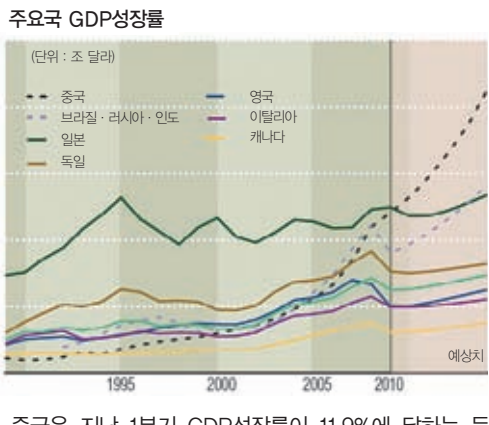
그러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발 금융불안과 중국 주택시장의 안정이 위안화 절상 시기를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중국 부동산 경기가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위안화 절상을 미루는 요인이다.

인민은행이 지난달 28일 750억 위안 규모의 1년만기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등 통제(규정, 춘절) 이후 9200억위안의 시중자금을 회수하는 등 과잉유동성 해소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당분간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같은 출구전략을 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2일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올해 들어 3번째로 인상을 했다. 기준율을 50bp 인상한 이번 조치로 3000억위안의 자금이 흡수되는 효과를 거두면서 자금의 과잉유동성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야 6월초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고 위안화 절상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중국은 지난 1분기 GDP성장률이 11.9%에 달하는 등 빠른 경제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부펀드 운영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의 대량 유입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5~6월경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발 금융불안과 중국 주택시장의 안정이 위안화 절상 시기를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중국 부동산 경기가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위안화 절상을 미루는 요인이다.

인민은행이 지난달 28일 750억 위안 규모의 1년만기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등 통제(규정, 춘절) 이후 9200억위안의 시중자금을 회수하는 등 과잉유동성 해소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당분간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같은 출구전략을 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2일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올해 들어 3번째로 인상을 했다. 기준율을 50bp 인상한 이번 조치로 3000억위안의 자금이 흡수되는 효과를 거두면서 자금의 과잉유동성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야 6월초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고 위안화 절상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삼성SDS의 글로벌 ICT서비스가 중동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막의 기적으로 주목받는 중동에도 삼성SDS의 ICT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첨단 ICT 서비스 환경의 중동 인터넷 빌딩시스템에서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 인도·중국의 지하철 AFC 시스템까지- 삼성SDS의 글로벌 ICT서비스가 국내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FC(Automatic Fare Collection)·승차권자동발매 및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 글로벌 ICT서비스-삼성SDS



# '엔' 과연 뜰까...와타나베 부인 주목

전문가들은 엔화 전망과 관련 와타나베 부인들을 주목하고 권고한다.

일본 경제가 희미하게 회복 조짐을 드러내면서 증시도 원래 궤도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과적지세로 하락하고 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형상을 그리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가장 더딘데다 물가 하락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어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이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에 가까운 0.1%지만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한층 더 강도 높은 금융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달랑 하나 남은 카드인 '금리인하'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엔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달러화 리보보다 싸지면 저금리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투자수익을 올리는 엔 캐리트레이드가 활발해져 오히려 엔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엔 캐리트레이드가 정점에 달한 1998년에는 엔화 공급량이 늘어 달러·엔 환율은 147엔까지 곤두박질쳤다. 금리 차

이로 인해 불붙은 엔 캐리트레이드가 엔화 가치를 더욱 손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증폭되고 있다.

와타나베 부인들의 주전장인 호주에서는 4월 중앙은행이 금리를 4.5%로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이고 있다.

일본과 주요국간 금리수준의 차이는 엔화 매도를 부추겨 엔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해외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수록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셈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은행 1분기 장사 잘했다

## 당기순익 3조5000억...전년비 6배 증가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해 1분기보다 3조 원(6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1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1조9000억원(126.5%)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7000억원으로 전

년 동기보다 2조4000억원(604.8%) 증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수협 등 특수은행도 같은 기간 6000억원(802.6%) 증가한 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이처럼 크게 상승한 이유는 순이자마진(NIM)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초 시장금리 급락으로 급격히 축소됐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예대금리차가 점차 회복됐다. 올해 1분기 순이자마진은 2.36%로 전년동기보다 0.45%포인트 증가했다.

국내경기 회복세 및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대손비용도 전년동기보다 1조9000억원(42.3%) 감소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대손비용은 2008년 1분기 1조6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에 이어 부실채권 정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비이자이익 부분에서도 외환과 생 관련이익이 5000억원에서 2000억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관련이익이 9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보다 2000억원(9.2%) 증가한 2조원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고 출구전략 논의로 인한 한계기업과 영세기업의 채무상환 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의 잠재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부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한 부실의 조기인식 및 부실채권 감축을 지속시키고 지난해에 이어 부실정리를 강화하고 생산성 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내실경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하이닉스 매각 등 일회성 요인과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도 순항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의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07년		08년		09년		증감(C-B-A)	증감률(C/A)		
	1분기	4분기	1분기(A)	4분기(B)	1분기(B)	4분기(C)				
국내은행	15.0	6.5	7.6	3.3	7.0	0.5	1.5	3.5	3.0	638.0
일반은행	10.2	4.0	6.1	2.5	5.0	0.4	1.3	2.7	2.4	604.8
시중은행	9.4	3.8	5.2	2.2	4.3	0.2	1.2	2.4	2.2	872.4
지방은행	0.8	0.2	0.9	0.3	0.7	0.1	0.1	0.3	0.2	129.0
특수은행	1.9	2.5	1.5	0.8	1.9	0.1	0.2	0.7	0.6	802.6

## 금융지주사 공시담당자 경고

### 금감원 "국내-미국 경영정보 다르면 문책"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지주사의 공시 담당자들을 소집하고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해 공시 의무 규정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

사의 공시 담당 임직원들과 공시 관련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전달되는 경영정보와 국내 증권거래소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달되는 경영정보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국내의 공시정도가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금감원은 향후 주요 경영정보가 미국과 국내 공시 중 한 군데라도 누락될 경우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국내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에 전달된 경영정보를 일치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금융지주사의 공시 담당자들

불러 국내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뿐만이 아닌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향후 미국과 국내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각각 비교한 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미국과 국내의 사업보고서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 ■삼성생명 상장 성공 의미

# 빛 값고 글로벌 사업 챙긴다

## 물량 적어 주가 청신호...연체이자 조율이 과제



삼성생명이 성공적인 공모주 청약에 마침내 오랜 숙원이었던 상장을 눈앞에 뒀다.

특히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묵은 빛 청산은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투자자들은 12일 삼성생명 상장 시초가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삼성생명은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를 통해 40.60대 1이라는 사상 최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청약 증거금은 총 19조8444억원으로 지난 1999년 KT&G(옛 담배인삼공사)의 11조5746억원을 넘어섰다.

회수할 수 있고 이를 반기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거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만원으로 계산해 받았지만 상장을 통한 빛 상환이 늦어지자 주당 3만원선으로 평가해줬었다. 그러나 공모가가 11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주당 4만원에서 최대 8만원이 이익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도 채권단에 넘긴 구조 3443만주를 통해 3조8500억원을 확보하면서 원금을 제외하고 오히려 1조4000억원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취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2009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6521억원으로 전년 동기 연간 실적 113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실적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의 주식 가치를 고려할 때 이번 분기 이익만으로도 순이익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식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것도 주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보호예수로 묶여 있는 우리사주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전체 상장주식의 10% 정도에 그치는 반면 주식을 원하는 수요는 많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에 비해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장 후 오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상장추진 배경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향후 글로벌사업 진출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상장하면 보험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상장의 물꼬를 튼 생보사 상장예를 실어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혜리 기자 healee81@

## 경쟁률 40대1...역대 최고 보험주에 긍정적 영향

이제 남은 문제는 삼성과 채권단 사이의 연체이자가 얼마나 정해질 것인가이다.

현재 삼성과 채권단간은 각각 이자 지급 불가와 이자를 6%가 적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자 규모가 1십 판결과 비슷한 6900억원선에서 결정되면, 원금(2조 450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1조4000억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순이익이 커지면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상장 예정일에 발효될 2009년 결산 실적(2009년 4월~2010년 3월)에 초점이 맞

카드의 길을 생각하다

# 이것이 1등카드의생각!

세상보다 먼저, 신한카드가 가장 앞선 카드의 길을 생각합니다

국내최초로 카드 포인트를 통장에 저축하고 이자까지 붙여주는 [신한 S-MORE카드]

포인트에 이자까지

포인트 적립처를 내 맘대로

국내최초로 적립처를 직접 골라내 맘대로 만드는 포인트카드 [하이포인트카드 나노]

신한카드만의 글로벌 서비스 브랜드

Always yours, URS

국내최초로 국내용 연회비만으로 해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신한카드 유어스]

신한카드만의 글로벌 서비스 브랜드

Always yours, URS

1400만 고객이 더 많은 혜택으로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는 언제나 가장 앞선 카드 생활을 생각합니다

2010년에도 더욱 진화하는 1등 카드, 역시 신한카드답죠?

▶ 간편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1544-7000

카드의 길을 생각하다 신한카드

## 은행 부실채권 비율 재상승

### 1분기 1.45%...연말보다 0.21%p 올라

올해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지난해 연말보다 0.21%포인트 상승한 1.45%를 나타냈다. 부실채권 규모도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지속되고 있는 반면 부실채권 정리는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국민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29%로 지난해 연말보다 0.18%포인트 상승했고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0.33%포인트 오른 1.93%를 나타내며 2% 가까이 육박했다. 신한은행은 1.28%로 0.28%포인트 상승했고 하나은행은 0.01%포인트 하락한 1.04%를 기록했다.

외국계은행도 다를 바 없었다. 외환은행은 1.12%로 0.18%포인트 상승했고 SC제일은행도 0.09%포인트 오른 1.24%, 한국씨티은행도 1.08%로 0.17%포인트 올랐다.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판매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 등으로 0.46%포인트나 상승한 2.70%를 나타냈다.

기업연선 부실채권비율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연말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대우자동차판매의 워크아웃 신청과 성원건설,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과 관련해 신규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 부실채권비

율은 0.40%포인트 상승한 2.20%를 기록했다.

부실채권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1분기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3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큰 폭 감소했다.

이는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가결산 및 결산을 앞둔 2분기와 4분기 중에는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하고 1분기와 3분기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에게 자체 정리계획에 따라 부실채권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기업구조조정 여신 증가로 단시일내 부실채권 정리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향후 건설과 조선, 해운업 등 취약업종 여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 대출 미끼 신종사기 요주의

최근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운 신종사기 수법으로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장기간 사용중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챈 건수가 증가했다. 대출사기단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및 메신저피싱 사기단에 팔

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사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신규 개설한 예금통장 등의 매입이 쉽지 않고 특히 금융당국이 신규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대출희망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규사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운영중인 한국 이자론의 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등을 이용해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

# 다우그룹 창업 25년만에 다우데이터 중심 18社 수직계열화

## 다우기술이 핵심축...소프트웨어에서 금융·부동산으로 확대

다우그룹은 지난 1986년 1월 설립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다우기술이 모태다. '다우'라는 사명은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多助)는 뜻이다. '세상이 모두 우리의 것'이라는 한글 의미도 포함돼 있다.

### 자회사 성장 궤적상대

다우그룹은 다우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도를 완성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다우기술이 여전히 중심축이다. 다우기술은 대표적인 우량 자회사 키움증권과 더불어 인큐브테크 등 성장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 등 자회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난해 7월 다우데이터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 다우그룹의 지주회사로 확인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다우데이터 자산이 늘면서 지주회사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적용이 제외됐다.

김익래 다우기술그룹 회장이 다우기술(1.34%), 다우데이터(43.6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우데이터는 다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로서 다우기술(37.53%), 다우엑실리콘(45%), 사람인HR(11.88%)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창립 15년이 지난 현재 다우그룹은 16개 계열사(상장사 4개사 포함)를 거느린 중견 그룹으로 성장했다. 계열사의 사업 내용도 소프트웨어를 주축으로 증권·금융정보·부동산개발등으로 다각화됐다.

(주)다우기술, (주)다우데이터, (주)인큐브테크, 키움증권(주)등 상장사가 4개, (주)다우와키움, (주)이머니, 키움인베스트먼트(주), 다우베트남(유), (주)사람인HR, (주)다우엑실리콘, (주)다우와키움건설, 다오과기(대련)유한공사,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건우투자자문(상해)유한공사, (주)다우재팬, Daou Hongkong Limited, 등 비상장사가 12개다.

지배구조상 코스닥 상장사인 다우데이터가 실질적인 모회사로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통합(다우기술), 반도체제조업(다우엑실리콘)을 하는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키

움증권은 다우기술의 자회사로 손자회사다.

###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

다우그룹의 사업구도는 소프트웨어와 금융·부동산으로 나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시스템통합(SI)업체 다우기술과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다우데이터, 인큐브테크가 대표적이다.

다우기술은 설립당시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었다. 종합인터넷 솔루션을 다뤘으며 현재는 인터넷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다우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사 제품 국내 총판사업이 주력이고 인큐브테크는 매킨토시 컴퓨터용인 퀵익스프레스를 공급하고 있다.

금융관련 계열사로는 2000년 설립해 2004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온라인매매전문 증권사 키움증권이 대표적이다.

키움증권의 자회사로는 투자업무 담당하는 키움인베스트먼트, 반도체제조업(다우엑실리콘)을 하는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키

움증권사다. 이밖에 다우와키움은 축전디지털밸리 시행사이며, 사람인HR은 온라인 취업포털사다. 또 VoIP(인터넷 기반 음성인식 장치) 솔루션 개발업체인 제너, 교육포털 사이트인 I-yah.com, 여성 포털 사이트인 우먼드림, UMS(통합메시징서비스)업체인 다우인터넷 등 인터넷 시장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처럼 다우그룹은 16개의 계열사를 통해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다우그룹의 창업주인 김익래 회장은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76년 한국 IBM에 입사한 후 81년 국내 벤처기업 1호로 평가되는 유닉스 설립에 참여했다.

지난 86년에는 유닉스를 나와 자본금 5000만원으로 10여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다우기술을 설립해 독자적인 사업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2000년 들어 금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는 김 회장이 경영 총괄을 담당하는 가운데 다우기술(김영훈 대표), 다우데이터(고운홍 대표), 키움증권(권원원 대표)등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건설을 선언했다.

다우그룹은 지난달 29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STX 회장, 김인 삼성SDS 사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전 다우디지털스퀘어 개소식을 열었다.

다우디지털스퀘어는 4만9000여㎡(1만5000평) 연면적에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로 다우기술, 다우데이터등 6개 계열사가 입주했다.

유무선통합(FMC) 환경에 최첨단 보안기능을 갖췄으며 세미나 전용공간과 사내 정원 등을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했다.

다우디지털스퀘어가 위치한 축전 디지털밸리 디지털포스트는 다우그룹이 총 18만㎡ 면적에 조성한 첨단 산업단지다.

현재 동부화재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완공돼 운영 중이며 오는 8월에는 한화S&C의 IDC가 건설을 마친다.

또 국내 대형 은행 1~2곳이 IDC 건설을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용인 지역의 새로운 IT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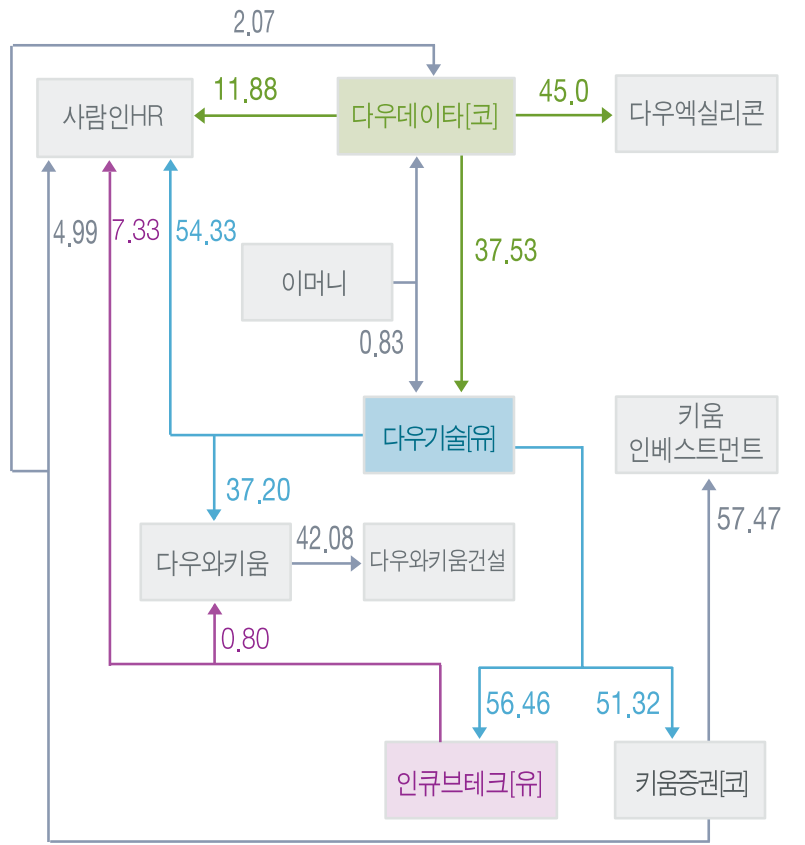
다우그룹은 디지털포스트 자연 친화적 웰빙 환경과 최첨단 유틸리티스 환경이 어우러진 한국 대표의 IT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다우기술그룹 지분구조 현황 (10.04.30 현재, 지분율%)



김익래 회장

다우기술 1.34  
다우데이터 43.60



한국판 실리콘밸리 건설 나서  
다우그룹은 최근 용인 축전에 IT 산업단지와 신사옥을 준공하고



지난달 29일 열린 축전 다우디지털스퀘어 개소식.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STX 회장, 김인 삼성SDS 사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등이 참석했다.

## 알짜 계열사 키움증권

1986년 설립된 다우기술은 국내 대표적인 IT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개발, 인터넷 솔루션, 자상거래, 스텝통합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고 솔루션 기반의 Solution Integration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내에 본격적인 인터넷 문화를 이끈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인프라 솔루션

2015년 기업순위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28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매출액은 1201억3900만원으로 6.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41억 7700만원을 기록해 44.9% 감소했다.

다우데이터는 1992년 6월 창립돼 IT서비스기업으로 소프트웨어 마케팅 및 웹사이트

코스닥에 상장됐다. 2000년 5월 증권투자업무를 시작, 7월 온라인 증권사 최초로 공모주 청약을 개시했다. 9월 휴대폰을 통한 주식거래 서비스를, 12월에는 온라인 증권사 최초로 주간 사업무를 시작했다.

2001년 6월 증권업계 최초로 사모 M&A펀드를 판매했고 11월 한빛은행·국민은행 등과 계좌개설 대행업무를

### 다우기술, 국내 IT솔루션 기업으로 선도 키움증권, 5년째 온라인 주식매매 MS 1위

루션,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현해주는 솔루션 WebStore, 사이버 교육환경을 구축해주는 WinipLearn/WinipNetplain,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웹메일 솔루션 WinipMail을 개발하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다우기술은 이와 같은 국내 최고의 IT기술력으로 국내최초의 온라인 전문증권사 키움증권과 IT Providing전문기업 (주)다우데이터시스템을 설립해 대한민국 대표 IT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IT벤처 1세대 기업으로 선택과 집중의 내실경영을 통해 지난 2005년 IT기업 중 순이익증가를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관계사 및 파트너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힘을 더해

트 컨설팅 사업이 근간이다. 18년 이상의 오랜 기업활동으로 축적된 국내 최대 채널망과 고객 DB를 통해 세계 최고의 IT기업인 Microsoft, Adobe, TrendMicro, Symantec, McAfree, IZEX, Quest Software, Coolgram, Sybase, WareValley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부터 CoolService를 오픈해 웹사이트 컨설팅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우데이터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8% 줄어든 202억원, 매출액과 순이익도 각각 전년대비 10%와 46% 감소한 1346억원과 133원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2005년 이후 5년째 온라인 주식매매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1월 설립됐고 2004년

이재용 기자 mywish73@

이른 아침,  
아내의 배움은  
어머니의 해장국은  
딸의 뽀빠는  
아들과의 등교는  
이웃과의 인사는  
마음의 피로회복제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박카스는 2000mg의 타우린과 비타민 B1을 5종의 비타민이 함유된 가장강력제입니다

광고심의필 1048-6-1 | 휴일 당일약국 확인은 www.pharm14.or.kr, 새롭고 정확해진 실시간 당일약국 시스템을 동아제약이 후원합니다 | [의약품] 용법용량: 성인 1회 1병, 1회 1회 박카스

# 외국인 한도 소진 종목 투자유의

## KT·SKT 100% 달해...남양유업·GS홈쇼핑도 80% 넘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취득 한도 소진율이 100%에 달해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종목들이 늘고 있다.

이는 곧 살 만큼의 주식을 모두 매수해 추후 차이 실현을 위한 매도 움직임만 남은 상태로 외국인 매수에 대한 기대치는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내 이동통신사 양대

산맥인 KT와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외국인들이 한도 내 주식을 모두 사버려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0월 16일 이미 그 한도를 가득 채웠고 그 언저리를 맴돌다 현재는 모두 소진된 상태며 KT는 지난 3월 한도 내에서 모두 매수했다. 이들은 모두 기간산업 대표기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법상 한도 49%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는 외국인 이 주식을 취득 하는데 있어 특정 비율이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종목의 특성 가치 등을 통해 구분되며 국가 주요산업 관련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인 취득한도

**외국인 취득한도 및 현재 지분율**

기업명	외국인 취득한도(%)	취득가능 주주수	현재 지분율(%)
KT	49	0	100
SK텔레콤	-	-	-
GS홈쇼핑	-	4898425	84.81
남양유업	100	1382	99.17
한라공조	-	125712956	88.22
연합과기	-	35916180	82.02
삼성전자	-	47724964	81.72

를 제한받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한국전력, KT, 한국가스공사, SBS 등 34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 기업들은 10개,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은 24개로 자본시장법, 방송법, 신문법 등 해당 근거법령에 따라 법상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취득한도 제한이 없어 100% 매수가 가능한 기업 중에 소진율 80% 이상인 기업들도 눈에 띈다. GS홈쇼핑은 소진율 84.81%, 한라공조는 88.22%, 연합과기 82.02%.

교보증권 김동하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한도의 경우 기간산업만 해당된다"며 "수급 자체가 기관 여러 보다는 강한 외국인 위

주의 수급이다 보니 한도가 꽉 차있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안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통신주의 경우 경기 방어주에 속하므로 지금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성장성이 끝났던 과거에 비해 아이폰 등의 새로운 아이템 재탄생으로 인한 성장성 확보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를 이 확산 종목들에 대해 호가 왜곡현상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17일 SK텔레콤의 경우 취득 가능한 물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호가 하한가로 잔량 전부에 대한 매수 주문을 걸어 다른 외국인들의 매매가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다.

하유미 기자 jsc508

# 동양증권 비대장주식 서비스 인기

## 거래불이행 위험 없어...개인 투자자 장외시장 관심 끌어



최근 삼성생명 등 장외주들이 큰 관심을 받으며 증시 입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증권증권이 지난 달 2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비대장주식 중개 서비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장외주식은 사실중개사이에서 전문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졌지만 대형 증권사가 장외주식에 대한 매매를 직접 주도하면서 거래불이행과 같은 리스크가 사라

졌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증권은 지난달 26일 '비대장주식 중개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외주식서비스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HTS(MyNet plus)에서 매수·매도의뢰등 거래 및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 불이행에 대한 염려가 없다.

동양증권증권이 서비스 대상은 통일규격 비대장주식이다. 거래종목은 현재 36개이며 삼성SDS, 포스코건설, SK텔레시스, 힐라코리아,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카드 등 대형우량주 위주로 거래된다.

또 다른 장점은 HTS로 시세제 공업체와 제휴해 기준가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 및 리서치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쉽게 비대장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증권증권은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0.5%, 중개수수료는 매

수·매도 모두 거래금액의 1%를 적용했다.

이밖에 매수의뢰시 증거금은 확인은 필요 없지만 매도 의뢰시 주식입고를 해야 하는데 매수증거금, 매도자입금액이 확인됨과 동시에 자동입출금이 된다. 위탁계좌보유고객에 한하며 거래시간은 9시~15시 사이다.

시장에서는 동양증권증권이 시작한 장외주식 중개 서비스에 대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장외주식 투자자는 "그동안 비대장주식은 사실중개업체들을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 개인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대형증권사들이 속속 장외주식 중개 서비스를 신속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신규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 토종 증권사 외국계보다 '장사 잘했네'

## 국내 증권사 순이익 93.4%↑ 외국계 38.7%↓

국내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외국 증권사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체 62개 증권사의 2009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2조9760억원으로 전년 2조202억원 대비 9559억원(47.3%)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8.8%로, 직전 회계연도 6.6%보다 2.2%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해 수탁수수료가 9059억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내사(42사)와 외국사(20

사)의 순이익을 비교하면 국내사 순이익은 2.5조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조2000억원(93.4%) 큰 폭 증가한 반면, 외국사 순이익은 4000억원으로 3000억원(△3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순이익에서는 대우증권(3159억원)과 하나투자증권(2518억원) 삼성증권(2503억원) 한국투자증권(2319억원) 현대증권(1814억

원) 등이 상위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바로투자(-10억원)와 한백투자증권(-20억원) 애블투자증권(-35억원) KTB투자증권(-332억원) KB투자증권(-428억원)은 적자라 면치 못했다. 외국사 중에서는 ING증권(-22억원)과 BNP파리바(-59억원) RBS아시아(-120억원)가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김재용 기자 manrikang@

# LG패션 수익성 언제쯤 나아지려나

## '고비용 구조가 문제'...하반기나 돼야 실적개선 기대

지난 4일 1분기 실적발표를 한 LG패션에 대해 증권사들의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LG패션은 지난 4일 1분기 영업이익이 237억81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6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2526억5800만원, 당기 순이익은 178억2200만원으로 각각 전년비 29.62%, 6.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LG패션은 이날 1.13% 하락한 2만63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6일 오전 9시 3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28% 감소한 2만5700에 매도되고 있어 이틀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LG패션에 대해 목표주가를 하회 또는 유지하는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은 6일 LG패션에 대해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아 아직 주가의 본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3만3500에서 3만 원으로 낮췄다.

대신증권은 2분기 이후에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기존 예상보다는 기대치를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연우 연구원은 "관관비 증가 폭이 컸고 영업외부문에서도 예상했던 수준보다 손익이 악화됐다"며 "투자를 늘려온 전략상 비

용증가는 불가피했지만 투자 이후 효율성 개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LG패션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으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목표주가를 3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메리츠증권증권 유우연 연구원은 "이번 실적이 놀라운 성장성을 확인시켰다"면서도 "수익개선은 4분기 이후가 가능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6일 LG패션의 1분기 매출이 경기회복으로 대폭 늘었지만 고비용구조의 지속으로 수익성은 저조하다고 판단, 투자자의 매수와 목표주가는 3만6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신한금융투자는 동사에 대한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주가는 그대로 유지한 것.

강희승 연구원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수수료 등의 비용 집행이 지속될 경우 실적 개선이 지연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이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508@

# 주간 IPO/장외주식시장

5월 첫째 주 코스피지수는 유랍발 악재에 1700선을 벗어나 1647.50pt로 장을 마감했다.

장외 주요 종목들은 한주간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생보사주들은 하락세가 우세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한주간 0.83% 하락하며 1만2000원대를 벗어나 1만1900원을 기록했고, 금호생명도 4025원으로 0.62% 하락 마감했다.

반면, 주초반 공모청약을 실시한 삼성생명은 한주간

0.38% 상승하며 13만3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케이티스(+0.52%)와 케이티씨에스(-1.96%)는 각각 4825원, 3750원으로 KT계열주들은 한주간 등락이 엇갈렸다.

IT계열 주에서는 삼성 SDS(+2.88%)가 한주 내내 상승하며 8만원대 진입에 성공했고, 서울통신기술도 한주간 0.54% 상승하며 4만625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엘지씨에스는 홀로 0.63% 하락하며 2만3759원으로 마감했다.

발현대계열주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5만500원)과 현대캐피탈(4만250원)이 각각 3.35%, 0.62% 하락하며 한주를 마쳤다.

반면, 현대위아는 한주간 4.52% 상승하며 4만원대 진입에 성공했고, 현대아산(+2.50%)도 1만250원을 기록했다.

현대로지엠(7050원)과 현대카드(1만5100원), 현대홈쇼핑(5만1250원)은 가격변동없이 장을 마쳤다.

이밖에, 포스코건설(-0.63%)

과 KT파워텔(-8.11%), SK건설(-3.57%), 메디슨(-5.14%), 삼성전자서비스(-3.49%)등 장외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다.

기업공개(IPO) 관련주에서는 청우증권인 힐라코리아(3만9150원)가 한주간 5.10% 상승하며 4만원대 진입을 앞두고 장을 마쳤다.

공모예정주인 인피니트헬스케어(+0.76%)와 투비소프트(+0.98%), 환영철강공업(+0.78%)은 각각 6650원, 1만5400원, 3만2250원을 기록했다.

# 장외시세표

기간 : 2010.5.3~2010.5.7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종목	2010.5.3			2010.5.7			주간등락폭	등락율	계좌이체
	팔자	사자	기준가	팔자	사자	기준가			
금호생명	4100	4000	4050	4100	3950	4025	-25	-0.62%	가능
미래에셋생명	12200	11800	12000	12000	11800	11900	-100	-0.83%	가능
삼성광주전자	23000	22500	22750	25000	23000	24000	1250	5.49%	가능
삼성SDSC	78500	78000	78250	81000	80000	80500	2250	2.88%	가능
서울통신기술C	47000	45000	46000	47000	45500	46250	2500	5.54%	가능
엘지씨에스C	24300	23500	23900	24000	23500	23750	-150	-0.63%	가능
케이티스C	4900	4700	4800	4950	4700	4825	25	0.52%	가능
케이티씨에스C	4000	3650	3825	3900	3600	3750	-75	-1.96%	가능
코리아로터리서비스	13500	12200	12850	13700	12700	13200	350	2.72%	가능
포스코건설	89000	87000	88000	89900	85000	87450	-550	-0.63%	가능
한국디지털위성방송E	19500	18500	19000	20000	19500	19750	750	3.95%	가능
현대로지엠	7500	6600	7050	7500	6600	7050	0	0.00%	가능
현대삼호중공업	56500	48000	52250	53000	48000	50500	-1750	-3.35%	가능
현대아산	11000	9000	10000	11000	9500	10250	250	2.50%	가능
현대위아	41000	36500	38750	41000	40000	40500	1750	4.52%	가능
현대카드	15600	14600	15100	15700	14500	15100	0	0.00%	가능
현대캐피탈	43000	38000	40500	42500	38000	40250	-250	-0.62%	가능
현대홈쇼핑	57500	45000	51250	57500	45000	51250	0	0.00%	가능
KT파워텔	11500	10700	11100	10700	9700	10200	-900	-8.11%	가능
SK건설	43000	41000	42000	41000	40000	40500	-1500	-3.57%	가능
만도	89000	85000	87000	89000	85000	87000	0	0.00%	공모예정
모바일리더C	25000	23500	24250	24000	23300	23650	-600	-2.47%	공모예정
삼성생명C	135000	130000	132500	136000	130000	133000	500	0.38%	공모완료
솔라시아C	8500	8000	8250	8200	7700	7950	-300	-3.64%	공모예정
실리콘엑스C	75000	72000	73500	75000	72500	73750	250	0.34%	공모예정
우리스팩	11000	10500	10750	11000	10500	10750	0	0.00%	공모완료
우양에이치씨C	13000	9500	11250	13000	9500	11250	0	0.00%	심사청구
유비벨록스C	18000	14000	16000	17900	13000	15450	-550	-3.44%	승인
이연제약C	17500	15800	16650	17300	16500	16900	250	1.50%	승인
인피니트헬스케어C	6900	6300	6600	7000	6300	6650	50	0.76%	공모예정
크루셀텍C	24500	24000	24250	25700	24500	25100	850	3.51%	심사청구
투비소프트C	16500	14000	15250	16300	14500	15400	150	0.98%	공모예정
환영철강공업	35000	29000	32000	35000	29500	32250	250	0.78%	공모예정
힐라코리아	39000	35500	37250	41500	36800	39150	1900	5.10%	심사청구

# 대우증권, 美 IT컨설팅 업체 국내상장 주관사

## 시카고 본사 둔 Acquity Group...내년 3월 상장 목표

대우증권은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IT컨설팅 전문회사 액쿼티 그룹(Acquity Group)과 한국 증시 상장을 위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초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우증권은 최근 액쿼티 그룹과 협의해 올해 9월경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 한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액쿼티 그룹은 2001년 3월에

설립된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전문회사로 GM, 모토로라, 유니레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아마존 등 세계 유수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온라인 기반의 브랜드 마케팅, 기술 혁신, 온라인 채널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IT 컨설팅 업계에서 10~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재로 경영진이 구성돼 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47%에

이를 만큼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120만달러, 660만달러를 나타냈다. 대우증권 IPO부 박재홍 부장은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미국 등의 순수 현지 기업들도 국내 상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제조업 일변도에서 금융, 소프트웨어, IT컨설팅 등으로 업종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현대모비스, 만도 상장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한국투자증권이 만도 상장으로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 재평가(re-rating)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매수'는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했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오는 19일 상장될 예정

인 만도의 기업공개는 현대 모비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만도가 10년 만에 증시로 돌아오게 돼 한국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될 것이고, 만도의 기업공개가 양사의 R&D 투자를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해 현대

모비스의 기술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도는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약 1760억원(예상 IPO 가격 8만 5000원 x 신주 발행 207만주)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의 대부분을 R&D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최영희 기자 chaosbul@

# 코스닥기업 자사주로 주가 부양

### 취득 기업 29곳...379억 규모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

코스닥지수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주가 방어에 나섰다.

자사주 매입은 통상 경영권 방어, 스톡옵션 지급, 주가 방어등을 위해 이뤄진다.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기업은 총 29개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자사주 취득을 직접 취득 발표된 기업은 12곳이며 신탁 취득은 16곳이다. 유일하게 동일 기업이 스톡옵션 취득을 위해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다.

총 취득 규모는 379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4억원 대비 약 105억원 정도 늘어났다. 최근 유가증권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이 회복을 거듭하면서 기업들의 주가방어 측면으로

풀이된다.

취득 기업 중 네오위즈게임즈가 99억7523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직접 취득 기업 중 지난해 3월 현재 100% 완료한 기업은 셀트리, 동일기업, SGA, 정삼제이엘에스, 킨크웨어, 비츠로셀이다.

자사주 취득제도는 1994년 4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사주취득은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자 기 명 의 과 계 산 으 로 자 가 가 발 행 한 주 식 을 사 들 이 는 것 을 말 한다.

지난 1997년 1월 일반투자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식의 다량소유제한 조치(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이 회복을 거듭하면서 기업들의 주가방어 측면으로

종목명	신고일	직접/신탁	기간	신고수량	취득규모	비율누계	취득규모누계
[코미펀드]	2010-04-30	직접	2010-05-01~2010-07-31	250,000	0	0%	0
[코메디텍]	2010-04-27	직접	2010-04-28~2010-06-30	35,000	8,488	24.25%	219,606,600
[코한포토전자]	2010-04-22	신탁	2010-04-22~2011-04-22	-	511,134	-	463,281,500
[코메스이아이]	2010-04-21	신탁	2010-04-21~2011-04-20	-	10,000	-	81,800,000
[코아보브앤드]	2010-04-16	신탁	2010-04-19~2010-10-19	-	222,905	-	759,589,250
[코아디스]	2010-04-08	직접	2010-04-09~2010-07-08	200,000	6,963	3.48%	103,448,700
[코엔조보기술]	2010-04-07	신탁	2010-04-07~2011-04-07	-	550,087	-	614,479,015
[코엔케이]	2010-03-25	신탁	2010-03-25~2011-03-24	-	95,361	-	772,623,550
[코넷NH]	2010-03-22	직접	2010-03-23~2010-06-22	500,000	385,711	77.14%	1,078,339,170
[코브라텍]	2010-03-22	신탁	2010-03-22~2010-09-24	-	117,369	-	423,907,970
[코조이텍]	2010-03-17	신탁	2010-03-18~2010-09-17	-	104,950	-	1,994,991,100
[코스타텍]	2010-03-12	신탁	2010-03-12~2010-09-12	-	58,341	-	609,594,670
[코트론]	2010-03-12	신탁	2010-03-12~2010-09-13	-	20,000	-	59,062,990
[코네티스]	2010-03-11	직접	2010-03-12~2010-06-11	439,077	272,547	62.07%	1,186,895,145
[코유오백코리아]	2010-03-03	신탁	2010-03-03~2011-03-03	-	174,174	-	786,686,215
[코메트바이오]	2010-03-02	신탁	2010-03-02~2011-03-02	-	128,083	-	997,360,760
[코엠피]	2010-02-25	직접	2010-02-26~2010-05-26	100,000	100,000	100%	306,425,210

# 태블릿PC, 삼성電 태블릿PC 기대한다

### 애플 '아이패드' 판매 초 돌풍 재연 예상...관련주 '들썩' 기대

애플의 야심작 '아이패드'가 지난해 출시되면서 국내 코스닥시장에도 태블릿PC 관련주들이 급등하며 화제가 됐다.

이후 잠잠하던 태블릿PC 관련주들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에 대응하기 위한 태블릿PC를 올해 상반기 이후 출시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준비중인 태블릿PC는 7인치 LCD 패널을 채용한 안드로이드 태블릿PC로 아이패드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처리장치(CPU)를 비롯한 주요 부품들은 직접 개발해 사용하며, LCD는 삼성전자가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를 태블릿에도 사용

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4인치 이상의 크기는 양산된 적이 없는 AMOLED의 가격이 아직 비싸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LCD를 채택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 장점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출시로 인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재우 유망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출시로 휴대전화 케이스 업체인 모베이스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모베이스는 국내 휴대전화 케이스 업체 가운데 가장

이제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이재천 기자 nls0118@

# OLED 소재·장비산업 수혜주 찾아라

### 단기적으로 소재재료 기업...증착장비 기업도 관심

OLED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최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거나 이미 신고가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다.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 하거나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다.

한시점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소재재료 기업들이다.

대우전자재료와 덕산하이메탈 등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대우전자재료는 2010년 1분기 중 LED 형광체의 상용화가 구체화하고 내년 상반기중 AMOLED 청색 발광재료의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회사는 LCD용 형광체, 유기 발광다이오드 발광재료, 태양 전지 전극재료 등 신사업 개척

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최근 신고가 갱신 행진을 이어가면서 1만2050원까지 오른 바 있다. 현재는 5월4일 종가 기준으로 1만150원을 기록해 조정을 받고 있다.

덕산하이메탈은 자회사인 루디스를 통해 3개의 주요 AMOLED 유기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덕산하이메탈 유일하다.

덕산하이메탈도 2009년 9월 14일 2만1250원을 전고점으로 향보를 거듭해오다 지난 4월23일 이후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제일모직도 AMOLED유기물질에 대해 201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삼성도 바일디스플레이(SMD)의 8세대 투자시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OLED 소재 부분에서 유기공통층을 IG디스플레이와 SMD에 납품하고 있

으며 OLED 조명쪽에 정부와 연계해 패널 개발 및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장비기업중에는 상장사 중에서 증착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엔유그리고 선익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동아엘텍을 꼽을 수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는 아니"라며 "5세대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면 시 상용화가 이뤄지면 시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양산체제가 이뤄지게 되면 OLED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LCD 대형 패널의 소재로서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해의 기업들도 투자를 단행하는 시기인 만큼 향후 주목할만한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천 기자 hnh@



# 삼성증권 금괴 매매 서비스

삼성증권이 지난 6일부터 골드바(Gold Bar, 금괴)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에서는 수년전부터 일부 PB 센터에서 골드바 매매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처음이다.

삼성증권이 금괴 매매하는 골드는 LS-Nikko동계증권(주)에서 제작하는 순도 99.99%의 1Kg 골드바로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런던금시장협회(LBMA)의 'Good Delivery List' (품질인증업체)에 등록된 업체다.

삼성증권은 코스닥 등록사인 (주)코미코를 통해 이 골드바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재천 기자 hnh@



### 미래에셋증권, 엔터프라이즈 주식형 펀드

국내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엔터프라이즈 주식형 펀드'를 판매한다. 운용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우량주 및 미래 성장기치가 높은 중종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벤치마크 자수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 펀드 순자산 3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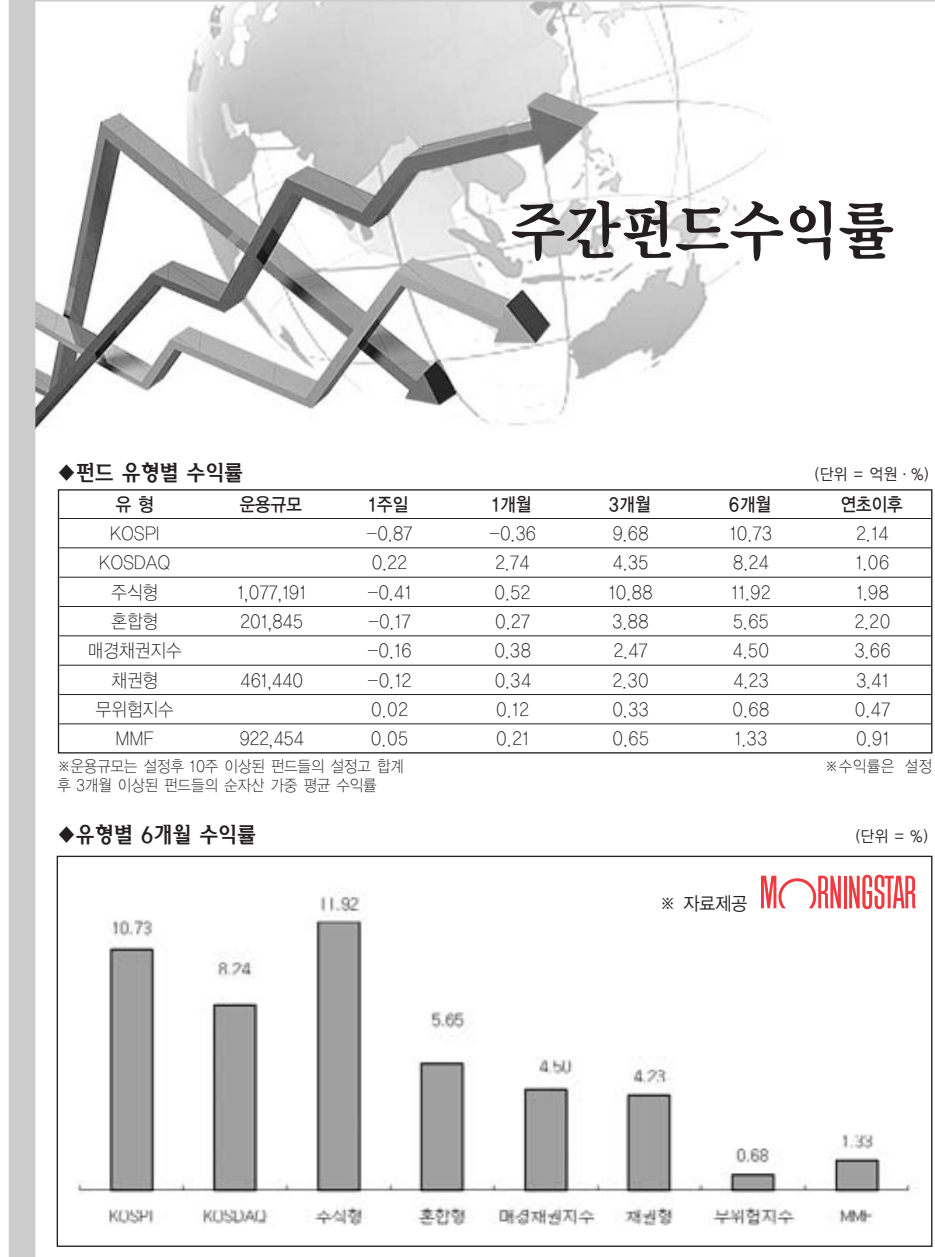
전체 펀드순자산이 평가액 증가와 채권형의 자금유입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일 발표한 '4월 펀드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펀드 자금유입은 62조5000억원, 자금유출은 66조원으로 3조5000억원의 자금 순유출을

나타냈다.

하지만 주가지수 상승 및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펀드 평가액 상승(+3조8000억원)과 채권형 펀드와의 자금유입(+2조4000억원)에 힘입어 펀드 전체 순자산은 전월대비 3000억원 증가한 32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재천 기자 mywish73@



◆합합형주식-고(주식편비 30%~70%미만)

펀드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배타비율
KT비전전략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혼합)	KT비전증권	2007-01-26	157	-0.26	0.83	9.29	10.14	22.68	0.83
KT비전전략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A	KT비전증권	2007-01-26	456	-0.35	0.25	9.01	10.01	22.95	0.83
미래에셋주식형 2	미래에셋증권	1994-06-21	149	0.05	-0.09	4.46	10.64	20.39	0.42
KT비전전략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B	KT비전증권	2008-03-05	446	-0.28	0.77	9.17	10.07	20.15	0.81
KT비전전략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C	KT비전증권	2008-03-05	214	-0.25	0.80	9.31	10.09	20.10	0.62
미래에셋주식형(주식투자채권) A	미래에셋증권	2007-01-26	20	0.10	0.73	6.36	7.95	13.67	0.32
KT비전전략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D	KT비전증권	2011-03-06	121	-0.44	0.05	7.42	10.28	19.98	0.60

◆합합형주식-중(주식편비 10%~30%이하)

펀드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배타비율
신원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1	신원투자증권	2009-08-04	119	-0.02	0.16	2.51	4.87	17.23	0.25
에이코에셋주식형 1	에이코에셋증권	2006-01-09	157	-0.17	0.49	3.50	5.33	13.70	0.24
신원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2	신원투자증권	2005-07-15	123	-0.02	0.44	3.93	6.11	13.48	0.21
신원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3	신원투자증권	2005-04-14	310	0.05	0.47	3.45	6.19	13.37	0.23
미래에셋주식형(주식투자채권) 1	미래에셋증권	2003-01-09	435	0.03	0.01	3.22	6.96	13.12	0.25
신원투자증권(주식투자채권) 4	신원투자증권	2005-05-16	284	-0.12	0.37	2.92	5.86	13.04	0.25
신원투자									

# 미래가치 '제로'...미련 버려라

## 재상장 극히 드물어 정리 매매기간 때 처분

"소주 값이라도 건질까? 그냥 포기하고 물어볼까?"

상장폐지 기업들이 정리매매에 돌입하면서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공황론이 고조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재상장'의 기대를 떨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몇몇 회사의 경우 재상장을 통해 주식 시장에 재입성할 사례도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실제로 몇몇 회사의 경우 재상장을 통해 주식 시장에 재입성할 사례도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선택할 여지는 ▲정리매매 기간 중 헐값 처분 ▲재상장을 노리고 보유 ▲장외거래를 통한 매도 ▲소액주주 모임을 통한 적극적인 단체 활동 등이 고작이다.

각관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만만치 않은 기다림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증권 전문가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들이 회생해서 정상화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만 정리매매 기간

동안 정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매매' 참여나 '주식보유'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회사의 존속 가치와 정리매매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정리매매를 결정했다면 2~3일 내에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좋다. 정리매매 기간이 임박 할 수록 '문자'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폐 이후에도 회사 나름의 수익모델이 있다면 헐값 처분보다

중시 퇴출을 끝 회사 파산이나 청산이 아닌 만큼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이 많거나 영업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주주로 남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정리매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90% 이하의 헐값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리매매는 상·하한가에 대한 제한이 없이 30분 간격으로 단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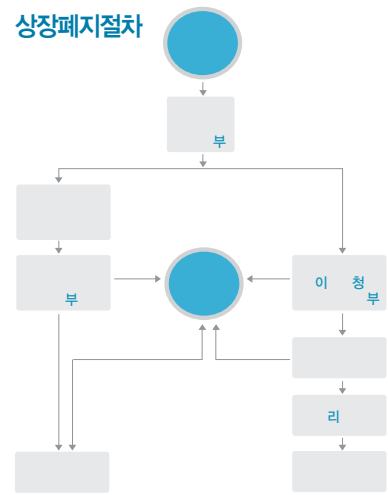
가매 방식이 거러되기 때문에 장중 볼러코스터 같은 급등락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3일부터 정리매매에 돌입한 현대금융과 태창기업이 대표적인 사례. 현대금융은 정리매매 첫날 92.21% 급락해 30원대에 거래됐고 3거래일째인 6일 오후 1시 현재 25원을 기록 중이다.

역시 정리매매 첫날 94% 급락한 바 있는 태창기업은 하락세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금융과 태창기업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지난달 28일 상장폐지 대상이 됐으며 오는 12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중인 종목은 시가가 매우 낮게 형성돼 있어 단 몇 원 차이에도 수익률이 극과 극을 오간다. 간혹 정리매매중에 이상 급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베팅 끝에 몰린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대다수인 만큼 단기적인 가격 왜곡 현상에 현혹되면 안된다.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 최저가인 5원에 거래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정리매매를 마치고 상장폐지가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 회수를 노려야 한다.

회사가 존속되는 경우 회생등을 통해 장외거래로 기사회생을 노릴 수 있고 청산된다면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청산금을 분배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리매매 종목들이 회생가치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지만 만큼 실제로 기대치에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장폐지됐던 기업이 재상장하는 경우는 더 희박하다.

실제로 국내 증시 50년 역사에서 상장 폐지 이후 재상장된 사례는 동양강철·에강리메텍·씨엔비텍·JS전선·진로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 소액주주의 반란 '만만치 않네'

## 하이마트, 소액주주연대 결성 최대주주와 경쟁 사례, 소액주주 4백명 대표이상등 경영진 교체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 소액주주들의 의미있는 실험이 투자자들의 관심이다.

성공 여부를 떠나 시도 자체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물론 경영권 인수를 통해 정상화에 직접 뛰어들어 사례도 있다.

막연하게 무능한 경영진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내 돈 물어내라"고 울부짖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총회 때 무능한 경영진을 해임하고 소액주주가 직접 이사회에 진출해 경영 개입에 나서기도 하고 회계장부 열람은 물론 주총 때 직접 표 대결에 나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경영권분쟁 중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중인 하이마트에 대표적인 경우다.

하이마트는 정리매매기간 중에 소액주주연대와 최대주주간의 지분경쟁이 본격화했

다. 지난달 26일 상장위원회에서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확정, 28일부터 정리매매 중이다.

현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양수 받은 소액주주연대는 우량한 제3자에게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고 우회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상장폐지 됐지만 스마트카드 시장 및 USIM카드 시장에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높게 평가 받고 있다"며 "현 경영진의 경영력 매각으로 지분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낸 경우도 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소액의 소액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의 연합된 힘의 위력을 보여줬다.

지난달 23일 열린 소액의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 400여명의 힘으로 현 경영진이 교체됐다. 소액의 대주주 최영·배일 등에 따른 작은 경영권 분쟁은

로 지난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던 기업이다.

퇴출 전 정리매매기간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결집시켜 결국 현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해임시켰다.

이들은 전임 회장들의 횡령 사실 고발 후 대표이사직에서 역올라가 물러났던 이재성 전(前) 대표이사 등 전 임원진을 다시 복귀시켰다. 주주모임이 탄생된 지 불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투넷은 주권매매거래 금지 후 회사 측이 일반적으로 정기주총을 연기하고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자 현 경영진 교체 등을 목적으로 주주들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한국기술산업 소액주주들도 방만한 기업 경영에 대한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장기업 지주 주주들도 지분공시를 통해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 먹잇감 노리는 청소부 '하이에나' 활개

## 제3자 명의 가짜 만들어 채권회수...소액주주 결성 장외기업 경쟁

상장폐지 기업이 생기면 표정판리를 하는 사들이 있다.

일명 '상폐 하이에나'인 그들은 울 들어 그 어느 해 보다 많아진 상장폐지 업체들 중 먹잇감을 찾기에 분주하다.

많은 문제점과 부실로 인해 상장폐지에 처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한 뒤 여러 방법을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다.

상폐 전문 인수팀들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보안 관련 A사. A사는 보안업체로 머니게임을 일삼는 김모씨가 인수하기 전까지 건실한 회사였다.

김모씨는 A사를 인수한 후 여러 방법을 통한 횡령과 무분별한 타법인 출자등으로 회사경영을 악화시켜 A사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되기 전 전체 시가총액이 10억대로 줄어든 A사에 일명 '상폐 하이에나'로 불리는 박모씨와 이모씨가 A사 대표 김모씨에게 접근했다. 김모씨에게 A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5억원을 제시했고 결국 이들은 A사를 접수했다.

이들은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급여 대장부터 뒤졌다. 퇴직금과 수당 급여 등에 있어 초과 지급된 부분을 찾아내 돌려 받았다.

이들은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급여 대장부터 뒤졌다. 퇴직금과 수당 급여 등에 있어 초과 지급된 부분을 찾아내 돌려 받았다.

상장폐지된 코스닥기업

회사명	폐지일자	폐지사유
아쿠스	2010-05-01	감사의견거절(감사위원회의견 및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
CL	2010-05-01	감사위원회의견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JS	2010-05-01	감사의견거절(감사위원회의견)
에버리시스	2010-05-01	감사위원회의견 및 계속기업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포에이저	2010-04-23	사업보고서 부정제출(기한 익일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테이스트시스템	2010-04-23	감사의견거절(감사위원회의견)
플랜	2010-04-23	사업보고서 부정제출(기한 익일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에스피코프	2010-04-20	최종무도 발생
에이시일렉	2010-04-17	감사의견거절(감사위원회의견)
쁘지	2010-04-17	최종무도 발생
채택셀	2010-04-15	감사위원회의견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스피디월드	2010-04-15	감사의견거절(감사위원회의견)
코레스	2010-04-13	자본잔액잠식
모텔	2010-04-13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모모	2010-04-13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등
일공공인정	2010-04-13	자본잔액잠식
유피트	2010-04-13	자본잔액잠식
에듀아크	2010-04-13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종영바이오텍	2010-04-13	자본잔액잠식

이와 동시에 채권과 채무를 파악한 뒤 본격적인 채권회수에 들어갔다. A사는 보안사업은 소폭흑자를 보면서도 꾸준히 영업을 해오고 있던 회사로 채무가 200억원이 넘었지만 채권 역시 50억대가 있었다.

A사를 인수한 하이에나들은 제3자 명의로 가짜 채무를 꾸민 뒤 본격적인 채권회수에 들어갔다. 50억원에 달하는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서 받아내는 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짜로 꾸민 채무부터

반제시켰다. 여기서 하이에나들의 상폐기업 정리는 끝났지 않았다. 기존 사업에 대한 영업권과 사업권에 대해서도 매각에 나섰다.

매각대금 역시 가짜로 꾸민 채무 반제에 사용됐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본전(투자금) 이외에도 5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폐 하이에나들의 방법은 결국 횡령과 배임으로 두 번의 상처를 입은 회사는 결국 재기불능이 됐다.

상폐 하이에나들의 또 다른 사례는 B사. B사는 상장기업이던 당시 200억대의 장외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B사는 바이오기업이 우회상장을 위한 M&A(인수합병)계약을 체결했지만 회계법인에게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서 퇴출됐다.

B사가 200억을 들여 지분을 인수한 회사의 실제 가치는 적게는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의 가치만 있었다. 하이에나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한 하이에나팀이 경영권을 갖고 있던 쪽에 접근하자 또 다른 하이에나팀들은 소액주주모임을 결성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도 B사의 장외기업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하이에나들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 M&A업계 관계자는 "상폐 하이에나들은 상장폐지 기업들 중 약성채권이 아닌 나름 우량채권이 있는 경우, 비상장사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상장유지는 어렵지만 영업권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의 회사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환 기자 sh@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에 항산화 비타민·미네랄이 플러스!

비타민C

비타민A

아연

셀레늄



1일 섭취량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 2캡슐

루테인	20mg	비타민A	700μgRE
비타민C	100mg	비타민E	1.2mg
비타민E	10mg	나이아신	13mg
아연	10.8mg	구리	1.5mg
셀레늄	55μg	망간	2mg

## 눈의 노화, 눈이 침침할 때 루테인 일동 루테인플러스

**눈건강을 지켜줍니다**

과로, 스트레스, 자외선... 그리고 TV나 컴퓨터의 청색광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항산화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항산화제를 더했습니다**

루테인 성분은 **눈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E, 아연, 셀레늄** 등 새로운 **항산화제**를 보강하였습니다.

**인체에 안전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美 KEMIN사의 100% 식물 추출성분** 클로리글루루테인으로 만든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체에 안전합니다.

**비타민A에 미네랄까지**

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A**와 망간, 구리 등 **미네랄**을 더하였고 식약청에서 **기타기능성** 등급을 획득, 믿을 수 있습니다.

**눈건강의 필수성분 루테인**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물체의 상이 맺히고 색깔을 구분하는 시력의 중심부입니다. 루테인은 황반의 구성성분으로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루테인의 특징**

노화로 감소되기 쉬운 항산화소 밀도를 유지시켜 주고, 눈 건강을 해치는 청색광을 차단합니다. 또한 망막과 황반에 영양을 공급하여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눈의 노화로 침침해 보이는 분 (항산화소 밀도유지에 도움)
-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눈의 보호가 필요한 직장인
- 장기간 렌즈를 착용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
- 햇빛(자외선)에 노출이 잦은 분 • 야간운전을 많이 하는 분
- 빛의 산화(노부식)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싶은 분

제품정보는 약국 에서 상의하세요  
가까운 약국 에서 구입하세요

**080-022-1010**



네오세미텍 주주들은 지난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역할을 호소하기 위해 김봉수 이사장과 면담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경호원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주주들과 김 이사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 확줄어든 관급공사라도 따자

## 턴키·대안공사 전달대비 20%에 불과...수주전 치열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대안공사 입찰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대형·중형·중소건설사들의 불꽃 튀는 수주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건설업체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5월 턴키·대안공사 입찰규모는 6540억원으로 총 5건에 그칠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턴키·대안공사 입찰물량이 3조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5분의1 정도 감소한 수치다.

지난 4일 입찰의향서를 접수받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로 건설공사 3개 공구에는 대우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등 총 10여개사가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다. 추정사업비 1390억원의 1공구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액 5위권내 3개 건설사가 맞붙는다.

사업규모가 다소 작은 1000억원 규모의 2공구는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졌고 3공구(사업비 810억원) 역시 태영건설, 고려개발, 화성산업 등이 입찰참여 의향을 제출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 이날 입찰한 '충청남도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대우건설, GS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건설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졌다. 이 공사 추정사업비는 700억원이다.

오는 17일 입찰이 예정된 총 사업비 1650억 규모의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는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수주전을 펼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44% 지분으로 동양건설(25%), 동진건설(8%) 등과 합계를 이끄는 SK건설(45%)도 대림산업(30%), 진흥기업(5%)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40%의 지분으로 동부건설(14%) 계통건설(13%) 코오롱건설(13%) 등과 함께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공사 턴키발주로 설계대 가계약이 70대 30인 가중치방식이 적용된 적용된다.

이밖에도 18일 입찰이 예정된 신지~고금 도로 턴키 건설공사는 대우건설과 중견건설사가 대거 입찰에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80% 지분을 갖고 대아건설(20%)과 한 조를 이뤘으며 포스코건설은 50% 지분으로 삼환기업(25%), 남양건설(2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롯데건설 역시 50% 지분을 갖고 고려개발(30%), 진양건설(10%), 해동건설(10%)과 함께 입찰에 참여했으며 동부건설도 50% 지분으로 남양건설(20%), 남광토건(20%), 동진건설(10%)과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코오롱건설(49%)은 44% 지분으로 동양건설(25%), 동진건설(8%) 등과 합계를 이끄는 SK건설(45%)도 대림산업(30%), 진흥기업(5%)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6일 입찰이 집행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단계 기숙사 신축공사도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등 7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집행되는 턴키·대안물량이 5건에 그치면서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300억원 규모의 소형공공공사 발주에도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si@

# 사회적 책임 국제협약 가입

## 현대건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국내 최초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가입하고 '201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 5월중 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00년 코피아난 전 UN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으로 UNGC 회원은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 등 국제활동 참여와 함께 관련 활동보고서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은 기술과 자본 등 생산적인 부분과 환경, 사회적 이슈와 윤리 등으로 나뉜다"며 "이번 UNGC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앞장서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공헌팀을 신설하여 10만 여명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공헌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임직원 끝전모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홍성일 기자 hsi@

# 체감경기 14개월만에 최저

## 중견건설사가 하락 주도...자금난 크게 악화

국내 건설사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건설경기 경기실사지수(CBSI)는 70.5로 지난해 2월 50.0을 기록한 이후 1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CBSI지수는 중견건설사의 하락 폭이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보다 컸다.

대형건설사는 3월대비 1.4p 상승한 80을 기록했고 중소건설사 역시 전월대비 2.9p 상승한 67.9를 기록한 반면, 중견건설사는 7.4p 하락한 63.0을 기록했다.

특히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 지수도 전월대비 각각 6.0p, 2.0p 하락한 86, 83.3을 기록해 자금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4월 지수가 작년 2월 이후 1년2개월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작년 정부의 SOC 예산 증가로 인한 지수상승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비수기가 끝나는 시점인 4월에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공공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비 17.1%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증가와 일부 주택업체 위기 등 민간 건설경기 부진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홍성일 기자 hsi@

# '제로 에너지 하우스' 선언

## 두산건설

두산건설이 오는 2015년까지 에너지 절감을 80% 달성하고 2020년까지 에너지 절감을 100%인 '제로 에너지 하우스'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두산건설은 서울 도곡동 두산아트스퀘어에서 미래 친환경 녹색 주거공간을 소개하는 워브 그린 홍보관을 개관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 미래 에너지주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새롭게 시작하는 워브그린은 에코플러스, 에너지플러스, 휴먼플러스로 총 50가지 친환경 기술로 구성돼 있다. 에코플러스는 건축물이 스스로 환경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 것을 뜻하고 에너지



플러스는 에너지 사용량을 목표로 고효율 기계, 태양광 등 첨단 기술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기술적용을 의미한다. 휴먼플러스는 친환경 자재, 첨단 IT 등 인간의 편의를 위한 주거공간을 실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워브그린 홍보관은 17일부터 인터넷(http://www.weveapt.co.kr)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홍성일 기자 hsi@



급매물도 거래가 힘들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지만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창업 수요가 늘면서 공인중개사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 거래 없는데 중개업자는 증가

## 8만4천760명...전 분기 대비 1.23% 늘어

급매물도 거래가 힘들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전국에 등록된 중개업자 수는 총 8만4760명으로 지난해 4분기 8만3728명에 비해 1.23%(1032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8만2891명에 비해서는 2.25%(1869명)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1분기 새로 등록된 중개업자 수는 총 6403명으로 지난해 4분기 5756명에 비해 11.2% 증가했다.

작년 1분기 5351명이 등록한 것에 비해서는 19.7% 증가했다.

반면 올해 휴업·폐업을 한 중개업자 수는 5764명으로 지난해 4분기 6102명에 비해 5.5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보다는 직장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창업 수요가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 중개업자 수는 1분기 현재 경기도가 2만566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만4919명, 인천 6169명 등으로 수도권이 67%(5만6751)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3980명, 경남 3737명, 충남 3034명, 대구 2994명 등의 순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 대우건설, UAE서 3천억 공사 수주

## 무사파 정유저장시설 설계서 시공까지 단독 공사

대우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인 타크리르(Takreer)가 발주한 무사파(Mussafah) 정유 저장시설 건설공사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 남동쪽에 위치한 무사파 공업지역에 총 16기의 정유 저장탱크로 구성된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총 공사금액은 2억 7000만 달러(한화 3,035억 원)이며 대우건설이 설계, 구매, 시공(EPC)을 일괄로 단독 수행하게 된다. 이달 중 착공해 2012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세계 최대의 LNG탱크 시공실적과 최대 규모(직경 98m)의 석유저장탱크 시공실적 등 LNG, 석유 저장탱크 건설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시공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나이지리아, 리비아, 카타르 등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저장탱크 시공능력과 수준 높은 EPC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검증 받은 것을 평가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1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아부다비 르와이스 저장시설을 수주했으며 이번 공사까지 연이어 수주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르와이스 저장시설에 이어 무사파 저장시설까지 수주하게 되면서 최근 플랜트 공사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위기로 마지 대우건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 해외공사 수주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산업은행 PEF로의 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올해 들어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파푸아뉴기니 LNG플랜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공사(1억 3000만 달러), 나이지리아 우토로 고-우엘리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공사(1억 7000만 달러) 등 해외공사를 잇따라 수주했으며 이번 무사파 정유 저장시설 건설공사까지

연이어 7000만 달러의 해외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대우건설의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45억 달러다.

김성배 기자 sbkim@

성공학점은행 | baeumland.com

#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자”

## [전체학과 수석합격 / 최고령(75세)합격 / 최연소(19세)합격]



### 1년만에 독학사 전체학과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 1년 3개월만에

### 91년생 독학사 최연소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 35년생 독학사 최고령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최단기 학사 취득의 문이 활짝!!!

- ① 단기간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
- ② 고졸자로 단기에 학위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
- ③ 전문대 졸업자로서 정규대학 학사편입을 원하시는 분
- ④ 서울 중위권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
- ⑤ 독학사, 방송통신대, 정규대를 중도 포기하신 분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 4227호 : 1990. 4. 7)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시험은

1990년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년 동안 단계(3월, 6월, 9월, 11월)에 맞는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학위취득 시 취업, 승진, 대학원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56명의 박사 급 이상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 현직 교수들이 펴낸 교재, 문제집,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직장인이 하루에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 전공 (8개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경영학과
- 법학과
- 가정학과
- 컴퓨터학과
- 유아교육학과
- 간호학과

## 성공학사고시 | www.baeumdhs.com

## 자료 및 상담 무료 1644 - 8144

# 알짜 분양단지도 너마저도...

## 보금자리·高價 영향 줄줄이 분양 연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도심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 기반이 두터운 지역에 위치할 뿐 아니라 대부분으로 전매기간이 짧아 환금성이 우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분양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말 분양할 예정이었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주재건축 아파트를 올 4월로 분양을 연기했다가 다시 6월로 미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호전되지 않은데다 조화와 시공사 간에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단지 바로 가까이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매매값이 3.3㎡당 3100만원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냐"면서 "시장상황이 나빠 선풍 분양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림산업과 GS건설 등이 지난해 공금을 계획했던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2구역'도 올 들어 몇 차례 연기됐다.

동부건설이 추진 중인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제빌딩3구역 주상복

합도 지난해 하반기에서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올 6월 분양을 미뤄둔 상태다. 이곳은 국제빌딩3구역 주상복합은 재개발은 아니지만 용산 국제업무단지 호재가 있어 큰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비싸다는 점이 요즘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기존주택 매매값 하락, 보급자리 공급 등이 맞물린 시장여건은 대기 수요가 항상 많은 서울지역이라 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집들은 매매값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적게는 1000만~2000만원씩, 많게는 1억원이 빠지고 있고, 서울 강남과 수도권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급자리주택이 연이어 공급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신규 분양아파트와의 가격차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했던 금호자이, 흑석푸르지오 등은 일부 미분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분양팀장은 "수도권에 비하면 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수요층이 두터워 리스크가 훨씬 적은 사업이지만 일부 미분양이 있음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소비자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나 기자 kjn@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말 분양 예정이었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주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4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6월로 미뤘다.

# 강남 재건축 평당 3500만원 붕괴

##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송파구 4.27%

4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2.57% 하락하며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3㎡당 매매가도 3468만원을 기록하면서 3500만원 선마저 붕괴됐다. 강남권 재건축 3.3㎡당 매매가가 35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9월 DTI규제 확대 이후 7개월 만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4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변동률은 -2.15%로 2008년 10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송파구(-4.27%) △강남구(-3.16%) △강동구(-2.26%) △서초구(-0.91%) △노원구(-0.15) 순으로 하락했으며 상승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송파구는 거의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2년 만에 조합업무 재개로 분

양신청이 들어가며 재건축 추진이 순조로움을 보였던 가락동 가락시영은 지난달 16일부터 분양신청이 중지되는 등 조합업무에 다시 차질이 빚어지면서 하락했다.

소송 등으로 지진 일부 매도자들은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락동 가락시영1차 56㎡가 4500만원 하락한 6억1000만~6억3000만원, 가락시영2차 62㎡가 4500만원 하락한 8억8000만~9억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잠실동 주공5단지도 연초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하락한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이어졌다. 주공 5단지 113㎡가 1억5000만원 하락한 10억3000만~10억6000만원, 116㎡가 9500만원 하락한 11억8000만~11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개포동 임대 주공단지들이 최고 2억원까지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거세다. 매수자 관심은 꾸준한 편이나 급매물 정도만 간

간히 거래가 될 뿐이다.

급매물이 늘면서 매수기회를 엿보는 수요자를 또한 증가시킨 듯이나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자들이 거래엔 소극적이다. 개포동 주공1단지 52㎡가 2억원 하락한 10억4천만~10억9천만원 주공3단지 49㎡가 1억5000만원 하락한 11억~12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강동구도 하락세가 계속됐다. 둔촌동 둔촌주공은 일부 다급한 매도자들이 매도호가를 추가로 내리고 있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부담으로 매수자들이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아 그대로 쌓여가는 모습이다.

서초구는 반포동 주공1단지 매매가가 크게 하락했다. 매도호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시세도 크게 하락한 것.

이달 들어 매물이 늘긴 했지만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아 매수자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다.

김성배 기자 sbkim@

## ■2차 보금자리 어디가 좋을까

# 블록 특징 알아야 청약 성공

## 출퇴근·환경·교육여건 등 꼼꼼히 따져보아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27일까지 이뤄진다.

2차 보금자리 물량은 서울 내곡·세곡, 경기 남양주 진건·부천 옥길·시흥 은계·구리 갈매 등 6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에서 15~21km 거리에 있고 서울에서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다.

합영진 부동산사장은 "예비 청약자들은 직장 등 생활권을 고려해 청약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역의 블록별 특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곡지구=내곡지구는 총 3개 블록(1·3·5블록) 가운데 5블록이 단연 입지면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다. 전용 84㎡ 주택형으로만 구성됐고 508~511동 좌측으로 하천이 흐른다.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2011년 개통 예정)과 지구 중심권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3블록은 북쪽과 동쪽에는 주거단지가, 서쪽에는 녹지가 형성돼 입지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북동쪽에 한호로를 이용하면 강남권 접근도 쉽다.

공급물량이 많은 1블록은 전용 59㎡와 84㎡로 구성됐는데 전용 84㎡가 블록 외부에 위치했다. 동쪽에 대규모 녹지가 있어 쾌적한 환경이 예상된다. 하지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모두 북쪽에 있어 남쪽 끝에 위치한 가구는 출입구가 다소 멀어진다 단점이 있다.

◆세곡지구= 세곡2지구는 총 3개 블록(1, 3, 4블록)이 공급된다. 3호선 수서역과의 접근성은

광명로와 연결해 있는 1블록이 가장 우수하다. 일반공급세대수는 많지만 학교는 없다. 나머지 3블록과 4블록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3블록은 서쪽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4블록은 근린공원이 풍부하고 분당~수서간고속도로와 8호선 북정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구리 갈매=구리갈매지구는 총 4개 블록(B-1~3, S-1 블록)이 공급된다.

B-1블록은 하천과 접해있으며 자족시설 및 주상복합아파트와 마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춘선 갈매역과의 거리도 가까우며 지구 내 사전예약 물량이 가장 많다. B-2, B-3블록은 초중고교와 가까워 도보통학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S-1블록의 경우 이번 공급물량 중 유일하게 10년 공공임대 물량이 포함돼 있으며 위치면에서는 가장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시설과 경춘선 갈매역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남양주 진건=남양주진건 지구는 2차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총 7개 블록으로 B-2~5, A-3~4, S-1블록 등으로 구성된다.

B-2,3블록은 지구의 북쪽 끝단에 위치하며 상업시설과 가깝고 중앙선 도농역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

B-4, A-3,4, S-1블록은 지구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B-4블록과 S-1블록은 공급물량이 지구 내 가장 많고 A-3,4블록에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첫 사전예약 첫 날인 7일 오전 서울 개포동GSH 2차지구에 많은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는 10년 임대와 분남임대물량이 나온다. S-1블록은 중학교 1개소와 바로 접한다.

B-5블록은 남쪽 끝단에 위치하지만 중앙선 도농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게 장점이다. 또 자족시설도 인접해 있다.

◆부천 옥길=옥길지구는 이번 에 총 4개 블록이 공급된다. S-1, B-2블록은 공공분양, A-2블록은 분남임대, B-1은 10년 임대 주택이다.

지구 주변에는 계수로와 범인로, 계수대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예정) 등이 관통하며 광명나들목, 시흥나들목 등의 진출입이 쉽다. 지구 서쪽과 북쪽에 각각 중심상업지구와 자족기능시설이 배치됐다. 자족시설과 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은 북쪽의 규모가 크다.

분양주택인 S-1블록은 1053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북쪽에는 녹지가 조성된다.

B-2블록은 1043가구 대단지 규모다. 소사~원신간 복선전철 북사역(예정) 거리가 지구내 블록 중 가장 가깝다. 단지 동쪽으로는 근린공원이 자리하며 단지 앞끝에는 상업지구가 위치한다.

B-1블록은 녹지공간이 단지를

감싼 형태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접해있다. A-2블록은 분남임대 근린공원과 초, 중학교, 상업지구가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시흥 은계=은계지구는 총 5개 블록에서 공급된다. B-1, B-2, S-1, S-4블록이 공공분양, S-3블록이 10년 임대로 구성됐다.

B-1블록의 경우 소사~원신간 복선전철 대야역, 외곽순환도로 시흥IC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북쪽은 자족시설, 서쪽으로는 상업시설, 남쪽은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반면 중심부에 위치한 S-1, S-4, B-2블록의 경우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을 가운데 두고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쉬울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지하철 역과의 거리는 다소 멀 수도 있다. S-4블록은 1403가구나 되기 때문에 이번 공급단지 중 가장 크다.

S-3블록은 자족시설과 바로 접하고 지구 남쪽 끝에 치우쳐 있는 반면, 10년 공공임대 물량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김지나 기자 kjn@

# 상가 분양시장은 후끈

## 선거·월드컵 피해 대거 투자설명회

5월 상가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남아공 월드컵 개최 등이 투자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판단해 업계에서는 5월에 잇따라 상가분양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물은 지난 4월 '상가투자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지하5층~지상12층 4개동, 총 22만104.43㎡ 규모로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유스페이스물'의 11블

럭 지하 1층은 5574.19㎡ 규모의 디지털 수족관(아쿠아리움) 체험 시설이 설치되고 10블럭 3층은 분당서울대병원 유 헬스 케어(U-Health Care) 시설 등의 키 테넌트가 입점한다. 11개동 동시공급으로 화제를 모은 판교 '엑스원 스테이트'는 상층부 상가 공급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9~26㎡ 면적의 '엑스원 비즈텔' 공급을 앞두고 있다.

판교내 상권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심상업지역내 상가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 주요 분양중(예정) 상가 현황

상가명	위치	총 규모	공급가격(3.3㎡)	준공예정	문의
유스페이스물	판교/판교 SD-1BL	지하5~지상12	900~3500/	2012년12월/	031-8016-6644
판교타워	판교 중앙 3-1BL	지하4~지상12	1400~8000/	2011년 10월/	031-703-6500
월드마크	연수구 송도동	지하2~지상20	600~2700/	2010년 11월/	032-859-0050
청라프라자	서구 청라지구	지하3~지상7	420~2600/	2010년 10월/	032-565-8866
아름타프리카	파주 운정지구	지하2~지상5	550~3100/	2010년 11월/	031-944-8090
일산자이단지내상가	고양시 석사동	지하~지상3	790~3800/	2010년 8월/	1588-3522
수원명보블록임영아파트	영통구명보동	지하~지상2	1100~3600/	2010년10월/	031-204-3447
강일프라자	강동구 강일동	지하3~지상10	600~3900/	2011년 1월/	02-3013-2900
목동GS자이	중랑구목동	지하5~지상35	200~2600/	2010년 12월/	02-432-466
JNC디지탈타워	구로구 구로동	지하4~지상18	1100~1300/	2012년 1월/	02-465-5000

판교 중심상업지 로데오거리와 연계된 전면 60m 로드샵 상가인 것이 특징인 '판교타워'는 지하4층~지상12층 규모로 100여개 점포 공급에 나선다. 청라지구, 강일지구의 택지지구내 상가시장도 공

격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강일지구는 서울권내 택지지구로 6500여세대 아파트가 입주에 비해 상가공급이 늦어 준공시점이 빠르고 우량입지 선점의 기회가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

가장 인기 시리즈 3탄

사상 최고의 빠질일이!

# 새나이가 와타나베

## ...완전히 빠지다

4월 12일 !!

티켓 오픈 !!

출연: 백인철, 기주봉, 정은표, 최필립, 김C, 김경범

극본: 연출: 장항준 Executive Producer: 김שמ, 최인철, 김지웅 제작감독: 한승조

2010.04.06 TUE\_06.06 SUN | 백암아트홀

평일 8시~10시, 4시, 7시 | 일요일 3시, 6시 | 월요일 1시

연극 새나이가 와타나베, 완전히 빠지다

추천: SBS 공동제작: S ENTERTAINMENT (주)영유지점 컴퍼니 INTERPARK 제작투자: Ventur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K&A

예매: INTERPARK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주)영유지점 컴퍼니 02)764-7858~9 클럽서비스(주) 02-501-7888 www.mmusical.co.kr www.directorm.co.kr

OMAR SHARIF  
P A R I S

# 24시간 티 없는 자신감

## 리투엔 멜라노 화이트닝 이펙터

신 미백성분 알파 비사보롤로 완성되는 리투엔 화이트닝 시스템

낮 시간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은 더욱 유연하게.

밤 시간에는 칙칙한 피부의 재생을 도와 피부를 더욱 투명하게.

피부의 리듬에 맞춰 24시간 화이트닝 케어를 지속하는 리투엔 멜라노 화이트닝 이펙터.



☑ 한번에 끝내는 4단계 화이트닝 시스템



**Day** - 낮 전용 미백 기능성 세럼

리투엔 멜라노 화이트닝 이펙터 I 데이

1 step. 피부각질주기 조절 2 step. 멜라닌 생성 억제



**Night** - 밤 전용 미백 토탈 솔루션

리투엔 멜라노 화이트닝 이펙터 II 나이트

3 step. 침착된 멜라닌 약화 4 step. 피부세포 재생 능력 강화

미백 기능성 화장품

- 리투엔 멜라노 화이트닝 이펙터 I 데이 - 30ml
- 리투엔 멜라노 화이트닝 이펙터 II 나이트 - 30ml



오마샤리프 화장품  
동성 제약 주식회사

Re20 It's only the skin that can return to 20.

전국 화장품 전문점과 동성 제약 온라인 쇼핑몰-동성이샵(www.dseshop.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동성이샵에서 샘플을 먼저 만나보세요. / 소비자상담 080-020-2500 (수신자부담) / 동성 제약 오마샤리프 화장품

# 대기업 LED조명 진검승부 예고

삼성·LG 이어 SK·포스코 가세...2015년 16兆 시장 성장 전망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대기업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과 LG가 LED조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 본격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SK와 포스코까지 이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는 올해 초 계열사를 통해 LED조명업체를 인수했으며 포스코도 출자를 통해 관련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어서 국내 대기업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ICT는 190억원을 출자해 포스코, 서울반도체와 LED조명업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 설립할 회사는 LED조명제조·설치 및 IT기술 융합 조명 제어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포스코 ICT측은 "5월 중 자본금 300억원 신규법인 설립 예정으로 사명 및 대표이사 등 상세한 사항은 법인설립 시점에서 확정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포스코가 자회사인 포스코ICT를 통해 LED조명시장 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이미 진출해 있던 삼성과 LG, SK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LED조명은 기존 조명에 쓰이는 에너지를 90% 가까이 절약할 수 있고 수명이 5~10배 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래 친환경사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업계에서는 세계 LED조명시장 규모를 2011년 3조원에서 2015년 1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LED조명시장의 경우 비싼 가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요 대기업들은 LED조명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LG는 그동안 LED TV 등에 집중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LED조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에서는 삼성LED가 LED조명 사업을 이끌고 있다. 삼성LED는 지난 1월 미국 조명 1위 기업인 어큐티브랜즈와 LED 조명 공동개발 협력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LED조명의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 선점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세중시 발전방안 발표와 함께 세중시에 대한 총 2조5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LED 조명엔진 생산기지를 설립, 연산 1억대의 생산규모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LG는 LG전자와 LG이노텍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LED조명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이노텍이 LED 조명엔진·모듈 등 부품을 만들면 LG전자가 이를 받아 완제품을 만들고 자사 유통·영업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LG전자는 LED조명제품 포크폴리오를 구축해 국내시장에서 역량을 키운 후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1월 할로겐 대체형 LED램프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과 LG에 이어 SK도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콤을 통해 LED조명시장을 노리고 있다.

SKC는 지난 1월 LED조명업체인 '섬레이(Sum-ray)' 사(社)를 인수, LED조명시장에 뛰어 들었다. SKC는 장기적으로 형광체와 패키징 소재, 에피칩 등 LED 핵심부품 소재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SKC 자회사인 SK텔레콤도 지난 2월 LED전문기업인 알티전자와 LED 조명 등 LED 분야 공동사업 수행에 대한 상호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통망 구축에 나섰다.

안경주 기자 ahnkj@

# 기업 31% "환율 마지노선 다 왔다"

68% "환율 하락 피해"···車·부품 업종 가장 커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 31%는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이 이미 무너졌거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수출제조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44.2%는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환율 수준으로 '1050원~1100원 미만'을 꼽았다. 이어 '1000원~1050원 미만'이 18.8%, '1100원~1150원 미만'이 16.3%, '1150원~1200원 미만' 11.5%, '1000원 미만' 5.8%, '1200원 이상' 3.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회의는 "최근의 환율 수준(4월 현재 1116원)을 감안할

때 수출기업 3곳 중 1곳(31.2%)이 수출 마지노선 환율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출기업 75.4%가 환율 하락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응답을 한 기업이 무려 81.7%에 달해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국내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경영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6월 말과 12월 말 평균 환율에 대해서는 각각 1092원과 1061원으로 예상해 기업은 현재의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업종의 87.3%가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어 '음식료·생활용품'(77.1%), '섬

유·의류'(75.8%), '선박·기계류'(74.3%) 순으로 조사돼 업종 평균치(67.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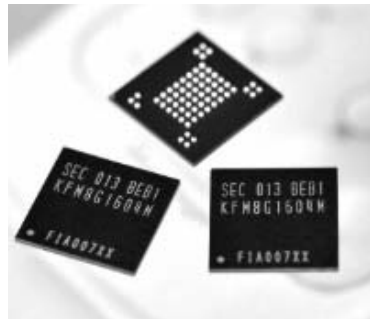
반면 '고무·플라스틱·제지'(56.8%), '금속'(57.3%)과 '가전'(60.0%) 업종은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기업의 75.4%가 '원화 환산 수출액 감소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기 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33.3%),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및 해외 시장점유율 하락'(2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듯 대한상의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수출업체에서는 가파른 환율 하락세로 인해 채산성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 2배 늘어난다

삼성전자, 세계 첫 스마트폰용 8Gb '원낸드'



앞으로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 용량이 2배 늘어나고 속도는 4배 빨라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내장 메모리에 설치할 때 느끼던 용량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하더라도 빠르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8Gb(기가비트) '원낸드(OneNAND)' 제품을 출시하고 이 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8Gb '원낸드'는 30나노급 SLC(Single-Level Cell)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고성능의 내장 메모리 솔루션이다.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컨트롤러를 포함해 기존 낸드플래시보다

읽기 속도를 대폭 높인 '원낸드'는 휴대전화의 운영체제를 저장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내장 메모리로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4Gb 용량의 원낸드가 최대 용량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용량을 두배로 늘려 8Gb 제품을 출시했다. 8Gb 용량의 원낸드를 스마트폰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칩에 1GB 용량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범용 낸드플래시보다 4배 이상 빠른 초당 70MB(메가바이트)의 읽기속도를 구현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하더라도 빠르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용으로 8Gb '원낸드' 칩 2개와 D램을 적용한 MCP 제품도 출시해, 2GB 이상의 대용량 '원낸드' 시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에 30나노급 8Gb SLC 낸드플래시도 함께 출시해 지난 해 11월 양산한 고속 낸드플래시, 3bit(비트) 낸드플래시와 함께 30나노급 낸드플래시 라인업을 갖추고 휴대폰, 디지털TV 등 고성능·대용량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차이나 데스크 출범** 차이나 데스크 출범식이 6일 코트라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김시영 우리은행 부행장(왼쪽부터), 양평안 CCPIT 대표, 황인평 제주도 행정부지사, 조환익 Kotra 사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장신현 주한중국대사, 리바오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석동연 경기도지문대사가 현판 제막식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사진=임명우기자 darkroom519@

# 자동차 내수·수출 모두 '화창'

전년비 증가세 뚜렷...경기회복·신차 효과

국내 완성 자동차 회사 5개사의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에 내수와 수출 그리고 생산을 합쳐 작년 4월보다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 4월 내수는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과 현대차 YF쏘나타와 투싼ix, 기아차 K7과 스포티지R, 르노삼성차 뉴 SM5 등 신차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전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비 30.3% 증가한 12만3210대를

기록했다. 1~4월 내수합계는 전년 동기비 34.4% 증가한 47만2877대를 기록했다. 4월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시장의 회복세와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의 빠른 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비 46.4% 증가한 24만18675대가 팔리다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수출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한 83만16279대를 기록했다. 내수와 수출의 호재로 생산도 늘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해운업계 재무구조개선 약정 발목

업황 회복 불구 채권은행 투자 뒷전 자구 노력 요구

해운업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은 주채무그룹에 대한 심사를 벌여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등 9개 그룹을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진해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 올랐으며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현대상선 역시 지난해 기록한 영업손실과 높은 부채비율 등을 이유로 약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해운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옥죄고 있다. 운임 회복을 바탕으로 국내 해운사들은 호황을 대비해 선대 확충 등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부채비율과 재무구조개선 압박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대한해운과 STX팬오션이 각각 8척과 17척의 선박을 인수할 방침인데 비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2011년 이후에도 선박 인수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조 발주의 경우에도 STX팬오션이 올해 6척을 계획 중인 가운데

현대상선도 2011년 이후 컨테이너선 2척 등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체결될 경우 이 같은 선박 발주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시장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비교적 뚜렷해 지금부터 호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국내 해운업계는 재무약정 등으로 손발이 묶여있다"면서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홍수 기자 shs@

# 현대제철, H형강 수출가격 또 인상

현대제철이 지난 4월 17일 5·6월 월별 H형강 수출가격을 톤당 50달러 인상한데 이어, 6·7월 월별 H형강 수출가격도 톤당 30달러 인상키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제철의 H형강 수출가격은 톤당 810달러(CFR, 운임포함인도가격) 이상이 되며 미주를 중심으로 한 원거리 지역은 톤당 850달러(CFR) 이상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시트파일(Sheet Pile, 강널말뚝)은 톤당 820~830달러(CFR) 수준에서 수주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수입 철스크랩 가격이 1월 톤당 320달러에서 5월 톤당 450달러로 130달러나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H형강 수출가격에는 톤당 100달러 수준만 반영했지만 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원화강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제형강 시장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주요 국가의 하반기 내수부양책에 따라 H형강류의 수요가 전년 대비 8~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진 기자 yjkim@

# '청기와 주유소' 사라진다

SK에너지의 1호 주유소이자 서울 홍익대학교 입구에 위치한 '청기와 주유소'가 오랜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지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의 전신인 '유공'이 지난 1971년에 설립한 '청기와주유소' 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매각 규모는 600억~7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 <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차습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뵙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저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귀사의 잡지와 사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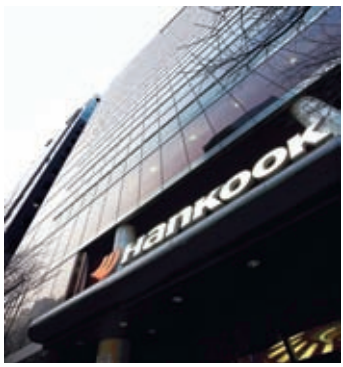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와 [이]투데이 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함께하는 제휴회사입니다.

# 한국타이어 기술지원 받던 日업체 추월 세계 7위 '우뚱'



### 지난해 세계 10대 타이어 업체중 유일하게 성장...2014년 세계 5위 목표



한국타이어는 초창기 일본 타이어 업체인 요코하마 타이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업체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어 업체로 성장한 것.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지속적이면서도 과감한 기술개발(R&D)투자를 들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매년 매출액의 5%를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해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회사가 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거기에 브랜드 가치 향상, 시장다변화,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 오는 2014년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한국타이어는 현재 연간 총 매출액의 약 5%를 기술개발에 투자해 품질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 5개의 연구소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미국)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직원의 6%가 기술개발 분야에 종사할 만큼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세계 시장에서 업계 선도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타이어 기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권위 있는 전문지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결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화려한 수상 경력, 세계 우수 자동차 업체에 신차용(OE)타이어 공급 사례, 국내외 모터스포츠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 등을 통해 한국타이어는 국내 1위를 넘어 '딩딩 글로벌 타이어 컴퍼니'로서의 브랜드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기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신규시장 확대에 주력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시장다변화 전략에 따라 이머징 마켓인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지역에서의 판매 네트워크

강화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크게 향상됐다.

한국타이어는 향후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 공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티스테이션 등 유통망 확대를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유통투자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기에 시장점유율 20% 이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타이어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시장 내수 점유율을 더욱 늘려나가는 한편 중국 타이어나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주도해 수익성을 한층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14년 1억 개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추가 생산능력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

지난 2009년 말 증설을 마무리한 금산공장은 총 연간 생산능력

이 2200만개로, 세계최대의 타이어 생산 공장인 대전공장(연 2400만개)에 이어 2번째로 큰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성장세에 맞춰 2011년 완공 예정인 헝가리 공장은 현재 증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헝가리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량이 500만개 증가해, 연간 총 생산량이 1000 만개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성을 감안해 이 지역에 제 6공장 건설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타이어 서승화 대표이사 부회장은 "국내의 시장에서 한국타이어가 거두고 있는 눈부신 성과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결과"라며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생산량 증대, 전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높은 수익성 창출 등 견고한 성장을 통해 리딩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yjkim@

## K5 출시에 떨고 있는 '신형 쏘나타'

### K5 대기 수요로 쏘나타 4월 판매 24% 감소

지난달 29일 기아자동차의 K5 출시로 지난달 신형 쏘나타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대차가 발표한 지난 4월 실적에 따르면 신형 쏘나타는 지난 4월 1만1138대를 판매해 전월 1만4575대 대비 23.6%나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1만7000여대 판매에 육박했던 신형 쏘나타의 판매는 올해 들어 1만3000여대로 줄어들어 4월 1만100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K5출시를 앞두고 고객들이 신형 쏘나타 대신 K5를 구매하기 위한 대기수요가 불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5는 지난달 5일 사전 계약에 들어간 이후 26일까지 총 6000대 계약을 돌파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2010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출시를 알린 K5는 지난 2005년 11월 출시한 중형 세단 '로체' 출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풀 체인지 모델로 프로젝트명 'TF'로 개발에 착수, 4년 간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총 4000억 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K5에는 ▲세타II 2.4 GDI ▲세타II 2.0 등 두 가지 가솔린 엔진과 ▲세타 2.0 LPI 엔진이 장착됐다. 특히 세타II 2.4 GDI 엔진은 최고출력 201마력, 최대토크 25.5 kg·m로 동급 최고 동력 성능을 확보했으며, 연비 역시 13.0 km/l를 달성했다. 이는 신형 쏘나타 F24와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신형 쏘나타 F24가 2866만원 ~ 2992만원 정도지만, K5는 2825만원 ~ 296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2.0 주력 모델 역시 신형 쏘나타와 비교해 약간 저렴하다.

K5는 운전석·동승석·사이드&커튼 에어백 등 총 6개의 에어백과 기존의 VDC 기능에 스티어링 휠까지 제어해 차체 자체의 안전성과 조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주는 VSM(차세대 VDC)을 기술된 전 모델에 기본 장착하는 등



안전성에 강조를 뒀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바이오메카온열시트, 국내 최초로 ▲온열 스티어링 휠, ▲HID 헤드램프 & 스마트 코너링 램프, ▲핸들 정렬 알림 기능, 승용 최초로 ▲액티브 에코 시스템, 동급 최초로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크루즈 컨트롤(정속 주행장치), ▲승중식 통풍기능에 열선시트의 기능이 더해진

양좌석 통풍시트 등 다양한 첨단 사양이 장착됐다.

한편 기아차는 올해 국내 3만 5000대, 해외 3만3000대 등 총 6만 8000대의 'K5'를 판매하고,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는 국내 7만대, 해외 11만대 등 총 18만대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명진 기자 yjkim@

## 車업계 이달 판촉 마케팅 '후끈'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선수금 10만원에 3년 저리 할부

국내의 자동차업체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 5월에도 파격적인 판촉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2일부터 재개한 노후 차량 교체지원 혜택과 지난달에 추가한 SM3 선 포인트 서비스를 5월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SM7과 SM5 구매 고객들에게 할부 원금에 따라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한 '마이 웨이(My Way)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금리를 최대한 낮춘 '저리할부 (3~36개월: 3.9%)'와 '저리 바이백(Buy Back) 할부 (36개월/48개월: 5.9%)'를 SM7, SM5 그리고 SM3 CE에 적용한다.

GM대우의 경우 5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라세티 프리미어 36개월 저리할부를 신규 실시한다. 특히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선수금 10만원만 내면 36개월 동안 5.9% 저리로 구입할 수 있다. 라세티 프리미어는 선수금 10%에 36

개월 5.9% 저리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쌍용차는 가정의 달을 맞아 로디우스 무이자 48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차종 별로 신차 구입비 지원은 '체어맨 H',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구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로디우스' 구매 고객에게는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쌍용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이 '체어맨 W', '체어맨 H'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RV 차종을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추가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주캐피탈과 제휴한 체어맨 특별 금융리스를 운영한다.

수입차 업체 중에는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토요타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8개월 무이자 할부 등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토요타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18개월 무이자 할부 및 36개월 3.6% 초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3490만원의 캠리를 구매하면 약 18개월 동안 약 13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3790만원의 프리우스 역시 월 147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미쓰비시의 경우 수입 첫차로 랜서를 구입하면 80만원 상당의 스포츠팩(전동식 선루프, 에어탭)을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

현대코리아 역시 한국 진출 6주년을 맞아 5월 '어코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원 또는 금융 유예 리스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전차종 등록 고객층 추적을 통해 뉴칼레도니아 여행권과 넷북을 증정하는 '드림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김명진 기자 yjkim@

## 넥센타이어 美 매출 38% 급증

### UHP타이어 시장 5% 차지...점유율 6위

넥센타이어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3일 최근 미국시장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품질력으로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체 타이어시장이 15% 감소했지만 넥센타이어는 고성능(UHP)타이어 매출 급증으로 오히려 38% 매출이 증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미국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UHP타이어 등 고성능타이어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모두 크게 향상되면서 실적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시장에서 넥센타이어는 올해 1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8.2%가 증가하였고,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도 무려 2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미국시장에서의 매출증가세가 가속도가 붙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넥

센타이어가 미국에서 전체 UHP타이어 시장의 5.0%를 차지한 것으로 미국의 유력 타이어잡지인 모던타이어딜러가 집계했다"며 "이 같은 실적은 미국 UHP 시장점유율에서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UHP 시장에서 톱 타이어 브랜드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UHP타이어 시장은 스포츠차 등 프리미엄타이어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75%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

회사측은 "세계 유수의 타이어 메이커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북미시장에서 넥센이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무엇보다 탄탄한 품질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최근 5년간 연구인력을 3배가량 늘리면서 다양한 제품군 출시와 함께 최첨단 기술이 집결된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주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향상도 이러한 세계수준의 품질력이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진 기자 yjkim@

## 르노삼성 2011년형 SM3 출시

### 전 모델 사이드 에어백 장착

르노삼성자동차가 안전성을 강화한 2011년형 SM3를 출시했다. 르노삼성은 국산 준중형차 가운데 처음으로 사이드 에어백을 기본장착한 '2011년형 SM3'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2011년형 SM3'는 선택사양으로 적용했던 사이드 에어백을 국산 준중형차 최초로 기본장착해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상품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5개(PE, SE, SE Black, LE, RE) 모델로 라인업을 재편했다. 특히 기존 SM3 모델에 신규 사양 및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사양을 모아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성한 SE 블랙이 새로 더해졌다.

SE 블랙 모델에는 좌우 독립식 풀오트 에어컨과 리어 에어 벤틸레이션, 앞좌석 열선시트

등의 편의사양이 기본으로 장착돼 고객 만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LE 트림의 경우 인텔 리전트 스마트 카드 시스템과 6:4 더블 폴딩 시트, 고급형 HMI(Human Machine Interface) 계기판 등을 신규 적용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장 마리 워르페 사장은 "안전사양 보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2011년형 SM3를 선보임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히고 "향후에도 고객 기호를 선 호도가 높은 사양 중심으로 상품성을 향상 시켜 준중형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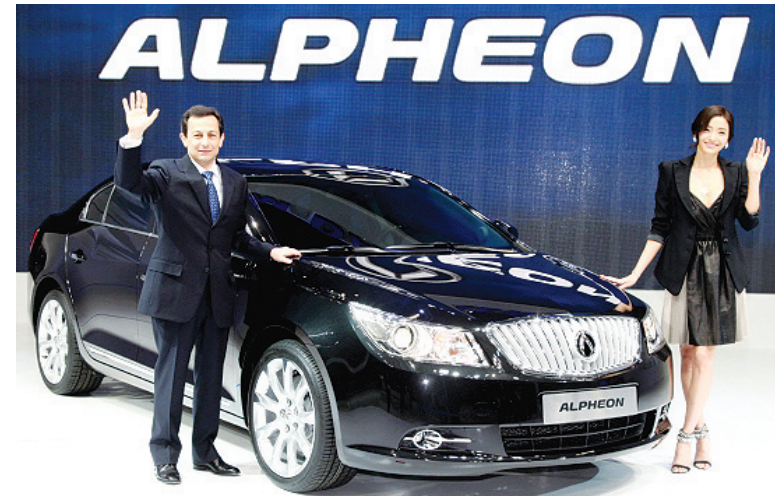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총 4만6000대가 판매되며 준중형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운 SM3의 2011년형 판매가격은 자동 변속기를 기준으로 ▲PE 1490만 원 ▲SE 1590만 원 ▲SE Black 1690만 원 ▲LE 1790만 원 ▲RE 1890만 원이다.

김준원 기자 junior@



## GM대우 지역총판제 자리 잡았다

### 2월 이후 꾸준한 증가



GM대우자동차가 올해 초부터 책임지역총판제를 본격 적용한 이후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9일 GM대우와 한국자동차공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본격 적용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내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GM대우의 내수판매는 총 1만893대로 전년 7080대 대비 무려 53.9%나 증가했고, 전월대비 해서는 15.5% 증가했다. 이는 GM대우의 주력차종인 마티즈 크리에

이티브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5061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무려 160.6%나 급증했다. 준중형 세단인 라세티 프리미어도 3234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17.6%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월에도 GM대우는 내수시장에서 8148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36.8% 증가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 평균 21.2%보다 높은 수치이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9.2%, 21.6% 증가한 것보다 높은 증가세다.

3월에도 GM대우는 9434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65.3%나 증가했고, 전월대비 15.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년 대비 29.5% 증가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GM대우 관계자는 "현재 대우차판매를 제외한 3개 총판사들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 수준대로 계속 유지되고 또한 하반기 알레온까지 출시된다면 올해 두자리수 내수점유율 확보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월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신규 지역총판사는 GM대우와 대리점 영업계약을 모두 완료하고,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수도권 중부와 서부, 충청, 호남 등 4개 권역은 대우차판매에 맡아 왔었지만 GM대우와 결별한 이후, GM대우가 직판제를 유지하고 있다. GM대우 측은 지역총판제가 정착할 때까지 신규 딜러사 선정 대신, 직판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김명진 기자 yjkim@

# 이통사 초당과금제 전면 확산

## SKT 이어 KT·LGT 도입...선심쓰기용 비판 소리 만만치 않아

이통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시장이 올해 12월이면 이통 3사 모두 초당과금제를 도입하면서 1초당 요금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3월 SK텔레콤이 1초당 요금제로 촉발된 초당과금제가 사실상 KT와 LG텔레콤이 정부에 '백기투항' 하면서 일단락 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이면에는 초당과금제 도입이 시기적으로 통신사 수익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이통사에서 음성통화로 거둬들이던 수익이 점차 하락하는 상황에서 초당과금제는 '선심쓰기'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KT와 SK텔레콤의 1분기 무선데이터 매출을 보면 이통사가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인한 매출 감소

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T의 무선 매출은 음성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는 감소했지만 데이터 ARPU 상승과 가입자 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성장했다.

특히 무선데이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8%의 큰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연말 출시한 FMC 서비스와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로 데이터 ARPU가 전년 동기 대비 15.1%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역시 무선인터넷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데이터정책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 3월말 현재 348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인터넷 매출은 올해 스마트폰 활성화 영향으로 데이터정책

요금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이통사업자가 음성통화에서 무선데이터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음성통화에서 더 이상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KT도 초당과금제 도입 배경으로 '무선데이터 매출 상승'을 꼽았다. 여론의 못매를 받는 것보다 제도 도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음성통화 시장에서 요금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제도 도입을 서두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통사에서는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정책이 활성화된 마당에

그동안 매출 상승에 효과노릇을 한 음성통화 시장을 버릴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음성통화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초당과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신시장 자체가 빠르게 무선데이터 쪽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 초당과금제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도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요금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뽑을 만큼 뽑은 시장에서 초당과금제 도입을 추진한데 대한 정책적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무선데이터 시장도 초기에 요금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득 기자 lob13@

#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인하 경쟁

## 통신업계, 천차만별 요금체계 통합...패킷당 값내려

통신업계가 해외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데이터로밍을 둘러싼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해외 데이터로밍이 각 국가별 통신정책과 통신사별로 천차만별이던 책정 요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요금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해외 와이파이로밍 서비스 상용화를 앞둔 KT는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와이파이로밍서비스 '룩앤쇼 Wi-Fi Roaming'을 내놨다. 룩앤쇼 와이파이로밍은 미



국, 중국, 일본 등 99개 국가의 와이파이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국내에서 미리 신청하면 해외에서 현지 사업자 와이파이망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와이파이망은 국내와 같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 출시로 SHOW 이용자는 해외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데이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3G 데이터로밍 요금(5.5~15.5원/0.5KB) 대비 최대 97%까지 저렴하다. 또 7월부터 본격화될 와이파이로밍 서비스에 앞서 주요 34

개국에서 미리 사용해보 수 있도록 '룩앤쇼 와이파이로밍 무료 체험' 이벤트를 5월과 6월 두 차례 진행한다.

SK텔레콤은 현재 국가별 로밍 상이한 데이터 로밍 요금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요금체계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패킷(1패킷=0.512KB)당 평균 6.5원, 최대 12.5원인 데이터로밍 요금을 세계 107개국에서 패킷당 4.55원의 단일 요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패킷당 4.55원은 국내에서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폰 고객이 종량제로 텍스트 형태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요금과 동일하다. SK텔레콤은 이번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단일화를 통해 평균 30% 정도 낮아져 로밍 이용자가 경제적으로 해외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근득 기자 lob13@

# 스마트폰 '개방형 對 폐쇄형' 구도

## OS 다양화, 시장 주도권 전략마련 고심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이 애플 아이폰의 폐쇄형과 안드로이드 등 윈도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연합의 양자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 이통사도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한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등 시장에서 개방형 운영체제(OS)로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MS 윈도모바일을 OS로 탑재해 트랙을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다가 아이폰 등장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OS 다양화로 전열을 가다듬은 상황이다.

아이폰의 폐쇄 정책에 견주기를 위해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는 올해 상반기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이폰 OS가 보이나나 작동 오류에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폐쇄적인 전략으로 점유율 확대가 더디다는 단점 때문이다.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으로 점유율을 끌어 올렸던 애플은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점유율 격차도 근소한 위치에 올라섰다.

지난 1월 기준 모바일 웹 접속률을 보면 미국의 경우 아이폰 47%, 안드로이드 39%로 10% 안에서 치열한 각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아이폰 개통 당시 접속률 80%를 넘나들었지만 최근에는 50%에 턱걸이하는 등 안드로이드(21%)의 성장세에 추종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OS 경쟁력의 결정요소가 OS 공개수준, 보안, 현재 시장점유율, 앱스토어 생태계, 외부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맥락으로 볼 때 안드로이드 OS는 현재 시점에서 국내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에게 최적의 OS인 셈이다.

반면 애플은 개방형 OS의 집중 견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유료콘텐츠, 폐쇄적 OS, 폐쇄적 단말로 수직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OS와 단말의 폐쇄적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는 구글을 위시한 연합군은 무료콘텐츠, 개방형 OS, 제조업체 협력으로 개방형과 수직통합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이미 휴대폰, 컴퓨터, 이북(E-BOOK) 등 단말 제조업체가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거나 도입 예정이고 컴퓨터 제조업체인 에이서, 델 등도 구글 진영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배근득 기자 lob13@



HTC, 스마트폰 2종 출시...스마트폰 디자이너 HTC와 SK텔레콤은 6일 오전 서울 송파동 롯데호텔에서 'HTC 디자이너', 'HTC HD2'를 국내 정식 런칭했다. 사진 = 임영우 기자 darkroom519@

# KT, 가족요금제 3종 출시

## 실버·청소년 등 차별화

KT는 실버, 청소년, 자녀 대상 무료 문자 등 가족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내놓은 효 요금제는 국내 실버요금제 중 최저 기본료 월 9800원에 무료 통화 60분(음성 30분, 영상 30분)과 무료 문자 30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청소년용 스마트폰 요금제 'i-Teen'은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 이용패턴에 맞게 기본료 3만5000원에 문자 4000건(6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i-Teen은 요금상한 기능을 갖춰

무료 사용량을 초과하면 문자나 음성발신이 정지되므로 과도한 요금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사전에 지정된 자녀(18세 이하) 휴대폰 번호로 SMS, MMS 구분 없이 월 3000원에 무제한 문자 전송이 가능한 '엄마사랑 무제한 문자'도 눈길을 끈다. 30세 이상 여성만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 3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엄마사랑 무제한 문자에서 자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서치' 서비스(월 3000원)를 함께 가입할 경우 1000원을 할인 받는다.

배근득 기자 lob13@

# 콕TV 3D 전용관 오픈

IPTV가 다양한 3D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3D IPTV'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KT는 지난 5일 콕TV에 3D VOD만으로 구성된 '3D 전용관'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3D 전용관에는 애니메이션과 다큐 등 다양한 장르의 3D 콘텐츠 10편이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의 맛' 등 명품 다큐멘터리를 생생한 3D 입체영상으로 즐길 수 있다.

배근득 기자 lob13@

# 세계 최초 지상파 3DTV 시범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세계 최초로 지상파 3DTV 시범방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방송에는 KBS, MBC, SBS, EBS 지상파 방송 4사가 공동 참여한다. KBS, SBS는 지난달 5일 각각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프리클라이밍 및 남아공 월드컵 경기의 3D 중계를 위해 지상파 입시체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지상파 4사 3DTV 시범방송은 오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별도 채널 6번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3DTV를 보유한 가정에서 볼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지상파 방송 4사

는 현재 보유하고 제작 중인 다양한 장르의 3D 방송콘텐츠를 내보낼 예정이다.

방송위는 차세대 3DTV 방송 표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지상파 3DTV 시범 방송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국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3D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득 기자 lob13@

**당신의 간은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까?**

# 만세!

생활은 갈수록 편리해지는데, 사람은 더욱 바빠지는 세상. 이제 건강 관리는 건부터 시작하세요. 우루소데옥시콜린산 함유된 우루사로 언제든 될 허든 힘차게 만세!

**느껴보세요, 우루사 효과! 건강한 간은 만세를 외칩니다**

우루소데옥시콜린산 함유

## 우루사

www.urso.co.kr  
소비자상담실 080-550-8308~9

# 백화점 지난달 매출 예상밖 호조

## 이상기후 불구 롯데 9.5%·신세계 15.6% 증가...소비 회복세·세일 등 영향

백화점업계가 4월 이상 기온으로 봄 의류 판매세가 좋지 않았지만 소비 회복세와 정기 프리미엄 세일 등에 힘입어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9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기준 점포 기준 매출이 9.5%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구두 44.7%, 아웃도어 30.5%, 핸드백 25.6%, 스포츠 21.5%, 식품 17.7%, 리빙패션 11.7%, 여성 11.7%, 해외명품 10.4% 등 순이었다.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프리미엄 세일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4월 전체 매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특히 세일 기간 강세를 보인 구두, 아웃도어, 핸드백 상품의 매출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이상 저온 현상으로 봄 재킷, 점퍼 등 이른바 겨울성 봄 상품과 날씨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의류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다.

이밖에 혼수·이사시즌과 봄을 맞아 집을 새단장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가구, 주방 등 리빙패션 상품군의 매출 성장세가 높게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실적 추이를 보이며 기준점 기준으로도 두자리인 15.6% 성장했다. 강남점 18.4%, 본점 10.8%, 경기점 18.9%, 광주점 12.4%, 센텀시티점이 신세계 전 점포중 가장 높은 23.1% 성장율을 기록했다.

상품군별 실적을 보면 구두가 37.7%, 핸드백 22.1% 성장한 잡화

장르가 전 장르중 가장 높은 24.7% 성장하며 세일 실적을 주도했다. 2~3월 신장을 상승 추이가 다소 둔화된 해외명품이 실적이 회복되며 22.8% 성장했고 화장품은 15.3% 성장했다.

또 봄 옷 판매가 활기를 보인 여성 캐주얼 장르가 15.1%, 아웃도어 매출이 31.7% 성장한 스포츠장르는 22.2% 매출이 증가하며 의류 매출을 주도했으며 남성이 8.4%, 여성정장이 9.2% 성장했다.

특히 가구, 침대가 20.8%, 주방용품이 30.2% 매출이 증가한 생활장르가 17.5% 매출이 증가했으며 식품은 10.4% 성장하며 대부분의 장르가 두자리 이상의 성장을 추이를 보였다. 현대백화점도 11개 점포에서 거둔 매출이 작년 4월보

다 7.4%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웃도어(28.2%), 스포츠(22%), 영패션 의류(18.6%), 잡화(13.2%), 여성류(5.9%) 등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과 여성 의류, 아웃도어 용품 등의 매출이 뛰면서 작년 4월보다 전체 매출이 12% 성장했고 AK플라자도 의류와 명품, 피혁제품 등이 잘 팔려 매출이 21.1%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변덕스런 날씨 영향도 있었지만 해외명품, 여성캐주얼, 구두, 아웃도어 등이 매출을 주도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5월도 가정의날 선물수요 등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인신기자 phila@

### 구제역 확산에 닭고기 소비 증가

구제역이 내륙 지방으로 퍼지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주는 대신 닭고기 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롯데마트의 닭고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마트의 닭고기 매출도 3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구제역 여파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쇠고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7% 줄었고 돼지고기 매출도 4% 감소했다.

조상희 기자 mountjo@



모두 함께 "대~한민국!"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남아공 월드컵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을 하고 있다. 16일까지 테크노마트를 방문하는 다문화가정 고객들은 월드컵 응원도구와 붉은 티셔츠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온라인몰 '데이 마케팅' 활발

#### 각종 기념일 겨냥 다양한 행사 전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비롯해 성년의 날(17일),로즈데이(14일) 등 각종 이벤트성 날들이 즐비하다. 이에 온라인몰들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데이(Day)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로즈데이, 성년의날 선물 카테고리별도 마련하고 장미 꽃바구니를 비롯해 커피시계, 목걸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G마켓이 운영하는 '굿데이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당일배송, 서울, 수도권 당일배송 상품별로 구분되어 있어 구매가 간편하고 꽃과 함께 케이크와 선물을 함께 배송해주는 상품도 마련돼 있다.

육선은 성년의 날 선물용 주얼리 시계를 한데 모은 '5월 스페셜 데이 기프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14K·18K 주얼리 전문관에서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각각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남성용 DKNY 실용가죽시계'를 12만 5500원에, 여성을 위한 '스와로브스키 이어링'을 1만2500원에, '14K 물방울하트 큐빅반지'를 5만4000원에 선보인다.

디앤샵은 성년의 날 선물, 데이트를 위한 패션아이템, 나들이 준비를 비롯해 커피시계, 목걸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닷컴에서는 5월·8월·15일 등 특별한 날의 공연을 예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3만 원을 증정하는 데이 마케팅 행사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아이러브유', '몬테크리스토' 공연 데이 기프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sa@



부라보콘 출시 40주년 해태제과의 장수 아이스크림인 부라보콘이 출시 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려 모델과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있다. 1970년 4월 출시된 부라보콘은 40년 동안 40억 개의 판매량을 올렸고, 판매된 아이스크림을 늘어놓으면 총 길이 72만km로 지구 18바퀴를 돌 수 있는 양이다. [연합뉴스]

### 롯데마트에서 구찌, 페라가모 산다

롯데마트가 지난 4일 롯데홈쇼핑과 함께 대형마트 최초로 월드점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기 명품은 물론 롯데홈쇼핑 대표 디자이너 의류브랜드인 '화속리', '최복호', 홈쇼핑 히트 화장품인 '아인호아', '리더스 링클', 롯데홈쇼핑 2009년 베스트상품 1위를 차지한 주얼리브랜드 '조이아폴드' 등 패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선애 기자 sa@

## 3500억 조미료시장 지각변동 예고

### CJ, 1위 내준데 이어 선풍식품 출시표...시장경쟁 치열



CJ제일제당(이하 CJ)과 대상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천연조미료시장에 선풍식품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80년대부터 '다시다'를 앞세우며 조미료 시장 1위를 줄곧 수성했던 CJ는 최근 대상에 밀리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풍식품까지 'CJ 타도'를 외치고 나서면서 시장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선풍식품은 4세대 조미료를 표방한 자연발효 조미료 '연두' 출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시 첫해인 올해 연 매출 60억원,

2~3년안에 300억원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간장으로 유명한 선풍식품은 그동안 MSG(L-글루탐산나트륨)를 대체하는 원료를 식품업계에 B2B(기업간 거래)로 납품해 왔지만 조미료를 직접 제조해 B2C(기업 대 소비자)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시장조사기관인 링크아즈텍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CJ제일제당의 '산들애'는 물량 및 금액 점유율에서 각각 54.5, 50.2를 차지, 45.5, 49.8을 기록한 대상 '맛선생'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 자리를 이어왔지만 올초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상에 자리를 내줬다.

'맛선생'은 올해 1~2월 누적 판매 기준으로 57.1의 물량 점유율과 56.0의 금액 점유율을 보이면서 각각 42.9, 44.0의 물량 및 금액 점유율을 기록한 '산들애'를 큰폭으로 밀어내며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업계는 선풍식품이 조미료시장에서 성과를 낼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CJ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의 경우 중국집이 망하면 미연도 망한다란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식당가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까닭에 경쟁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다시다의 경우 주로 가정 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조미료시장은 과거 60~70년대 대상 미원에서 80년대 CJ 다시다로 이어져 왔지만 최근엔 웰빙 트렌드에 맞춰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며 "최근 조미료시장에서 입지가 약해진 CJ가 트렌드에 부합한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지 않는다면 점유율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mountjo@

### 식품정보 변경 1년에 1회만 가능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가 1년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

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에 통합 시행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는 그동안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 100년 역사 전기車, 배터리 기술 발달로 꽃 핀다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연료전기차

전기차는 자동차가 친환경을 추구할 때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궁극점이다. 이런 전기자동차의 등장은 CO<sub>2</sub>를 비롯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광범위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붐을 터트렸다. 전기차는 이를 그대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모터를 돌려 회전운동을 얻는다. 엔진 자동차와 커다란 구조는 같되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쓰는 만큼 배기가스가 제로다. 반면 일반 내연기관은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키고 이런 연소 뒤에 나오는 배기가스를 내뿜어야 한다. 때문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20세기 말부터 전기차는 하나의 커다란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선진 메이커는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 그리고 미국의 GM, 그리고 궁극적인 연료전기차를 개발 중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적극적이다.

## 글로벌 생산업체도 양산 가속도...현대차 등도 기술 개발 총력

◇ 과도기 책임질 하이브리드 = 양산차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차의 개념을 도입한 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하이브리드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다. 다만 엔진에 전기모터의 힘을 더해 작은 배기량으로도 부족한 출력을 낼 수 있다. 반쪽짜리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실제로 렉서스 RX400h 하이브리드는 앞바퀴를 엔진으로 뒷바퀴는 모터가 주축이 되어 토크를 전달한다. 하이브리드는 이렇듯 전기모터를 결합했으나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전기모터가 엔진 출력에 힘을 보태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엔진이 구동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충전된다. 토요타가 처음 개발해 특허를 낸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우리

나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두루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정지 또는 저속 때 엔진을 아예 끄고 전기모터로만 주행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됐다. 이런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의 과도기를 책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요타는 이미 21세기 차세대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차를 꼽아두었다. 일찌감치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착수했고 1997년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양산형 모델인 '프리우스'를 출시했다. 매년 꾸준한 판매 증가를 통해 현재까지 100만대에 이르는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토요타는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와 함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인식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판매 증대

로 이어져 최근에는 세계 자동차 1위 업체인 GM을 위협하는 차 메이커로 부상하기도 했다. ◇ 전기차 충전할 화력연료 = 한편 전기차도 여차피 전기를 충전해야 하는데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 화력 또는 원자력을 이용해야한다면 이 역시 궁극적인 친환경 차는 아니다.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연료전기차다. 연료전기(Fuel Cell)차는 전기차와 비슷하지만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르다.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 아닌 수소를 주입해 배터리를 살려낸다. 한 마디로 휴대용 배터리를 전기로 충전하는 것이 아닌 배터리 안에 수소를 쏙 집어넣어 급세 배터리가 완충되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연료전지에 수소를 주입하면 이를 분해해 전기를 만들고 배기가

스 대신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배출된다. 이러한 방식은 배터리 기술의 한계치가 존재하는 상황에 가장 궁극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메르세데스-벤츠를 선두로 각 메이커들이 연료전기차를 개발하고 시험운행 중에 있다. ◇ 전기차 개발의 선두주자 GM = 본 메이커가 궁극적인 전기차보다 그 이전까지를 책임질 하이브리드에 전념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GM은 곧바로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GM의 전기차 표준이 곧 글로벌 전기차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GM은 시보레 브랜드를 앞세워 본격적인 양산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양산전기차 '시보레 볼트(Volt)'를 내세웠다.



기아차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

볼트는 지난 2007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컨셉트카로 첫 등장했다. 전기충전 구동방식의 플러그-인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올해 말 미국에서 첫 양산돼 미국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에서 첫 판매될 예정이다. 볼트와 같은 플러그-인 전기차는 일반 가정에서 전원에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1달러 정도의 전기로 수백km를 달릴 수 있는 유지는는 다분히 매력적이다. 여기에 소형 발전기까지 더하면 주행거리는 450km를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 전기차의 선두기업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양산 모델의 출력은 150마력 안팎이다. 최고속도는 160km까지 등장했다. 이런 성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배터리다. 최근 트렌드는 기존의 니켈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또는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대세를 이룬다. 각각의 특성보다 개발비용과 성능, 무게에 따라 배터리 종류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커다란 배터리보다 작은 배터리 여러 개를 엮어 만든 구성이 최근 트렌드다. 최근 국내 LG화학이 GM과 손잡았다. LG화학은 시보레

볼트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비롯한 주요 전기 부품, 하드웨어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 100년의 숙제가 풀리다 = 현재 '전기차 기술=배터리 기술'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차량 제동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 배터리 팩에 저장해 전기가동 시간을 늘여주는 방법도 도입된 상태다. 또 배터리 팩 내의 컨트롤 시스템은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확인해 전력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 주행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차량 내 장착된 소형 엔진 발전기가 가동돼 생성된 전력을 배터리에 공급하고 지속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플러그-인 전기차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 충전 시간은 240볼트 전원을 기준으로 3시간이면 충분하다. 전기료를 휘발유 값으로 대비하면 6분의 1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1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배터리는 숙제는 최근 들어 발 빠르게 진화하면서 해답을 찾고 있다.

◇ 하이브리드 양산기술 지닌 국내 메이커 = 국내 완성차 메이커 역시 환경요인이 점차 심화되고 석유 자원의 고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 미래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개발이 필수요건이 됐고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위한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선 선두기업인 만큼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다. 친환경 후발 메이커인 만큼 공세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등장한 차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다. 이미 2004년 현대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50대를 환경부에 공급했다. 환경부는 납품 받은 전기차를 경찰청 등에 지원해 하이브리드 차량이 실제 거리를 주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밖에 쌍용자동차가 정부지원으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에 한창이다. 쌍용차의 특성상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를 지닌 만큼 조만간 디젤 하이브리드 양산차를 가장 먼저 내놓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기차 GM 볼트(Volt)



전기차 GM 볼트(Volt)

## 축전기술 발달 1870년대 전기차 첫 선

### 당시 배터리 무게와 충전 문제 해결 못해 실용화 실패

2010년 4월 비록 일부구역을 제한적인 속도로 달려야하지만 저속전기차의 국내 도로주행이 허가되기에 이르렀다. 언뜻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렸던 전기차가 어느 틈인가 우리 곁에도 성큼 다가와 있다. 미래의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듯하지만 사실 전기차의 역사는 100여 년을 이어온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오래됐다. 1865년 프랑스에서 축전기가 처음으로 발명되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한 전기 동력원 개발이 러시를 이뤘다. 축전 기술은 전기 동력의 휴대성을 뒷받침했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탈 것에도 접목이 됐다. 이윽고 이런 축전기술을 바탕으로 1870년대 전기차가 첫 선을 보였다. 189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20년이나 더 빠른 역사를 지닌 셈이다. 최초의 전기차가 등장한 것은 1873년. 자동차라기보다 3개의

바퀴를 가진 모터사이클이었다. 일반 모터사이클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지금의 자동차보다 사이즈는 더 컸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전기차는 증기기관의 매캐함이 없었고 진동이 적었으며 소음이 무척 작았다. 다양한 장점을 지녔지만 그 이상의 단점도 많았다. 요즘 세상도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그 시절이라고 풀었을 리 만무하다. 19세기말 배터리는 무거운 중량과 충전에 걸리는 오랜 시간이 문제화돼 실용화 단계에 접근하지 못했다. 물론 100여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초기 전기차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내연기관의 고성능화를 쫓아가지 못했다. 구조가 간단할 덕에 1920년대까지 소량만 꾸준히 생산되기도 했지만 고성능을 내세우며 발전하는 엔진 자동차의 후광에 밀려 큰 빛을 보지 못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그러나 21세기 들어 상황은 급변전했다. 1980년대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됐다. 전세계 완성차 메이커 역시 차세대 동력원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한 전기차의 숙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0년대 들어 속속 전기차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양산 전기차 1호는 1996년 제너럴 모터스(GM)의 'EV1'이었다. 이 전기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임대형식으로 보급됐다. 얼마 후 수요가 크지 않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기자동차 'EV1'의 조립라인은 폐쇄됐다. 너무 이른 출발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항속거리가 200km가 넘었고 최고속도도 150km에 달했던 EV1은 100년 넘게 풀지 못하던 전기차의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ELORD**

자유로운 스윙의 또 하나의 비밀  
엘로드 액션 워머 INNER

KEEP WARM  
QUICK DRY  
STRECH

STRECH  
HIGH BREATHING

UV-CUT  
STRECH  
ANTI-BACTERIA

엘로드 프로골퍼 강다나

Action Warmer의 특징

- 동점 Golf / Sports 및 야외활동시 탁월한 보온효과
- 최첨단 스포츠 전문소재의 사용으로 최적의 신체 Condition 제공
- 혈액순환을 촉진 시킴으로써 운동시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
- 몸에 Fit되는 소재로 세련되고 스포티한 외관과 보정효과

MAN WOMAN

보온효과 신축기능 속건기능 투습효과 자외선 차단 방충효과

HEAD OFFICE : 02-3677-8617

# 이통사 '폰 전쟁' 시작됐다

바이오프로 스마트폰 전성시대가 왔다. 특정 사용자에게 한정됐던 스마트폰이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의 상륙과 함께 국내 통신시장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번호이동과 마케팅 과열 경쟁으로 출혈이 심했던 통신사업자들도 스마트폰 활성화가 정해진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만이 가진 확장성과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UI

다. 아이폰은 출시 6개월만에 50만대 넘게 판매되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윈도모바일 진영에는 옴니아 시리즈가 있지만 최근에는 입지가 좁아지게 사실.

이제는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안드로이드폰을 스마트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는 스마트폰 특성상 일선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검증이 이뤄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병원, 대학 등 원격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아예 정책적으로 모든 사원(학생)에게 스마트폰 지급을 고려할 정도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회적 트렌드가 확산되자 통신업계에서는 저마다 무선인터넷

푸드점, 도서관 및 대학캠퍼스, 백화점,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 지역을 위주로 구축돼 있다.

올해 쿠파쇼즌을 상반기 6900여곳, 하반기 7300여곳을 구축해 연말까지 누적 2만7300여곳, AP 기준 7만8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KT 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은 "아이폰 도입 후 스마트폰 고객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쿠파쇼즌 확대 및 고객 확보에 맞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SK텔레콤도 2분기 10종의 스마트폰 라인업을 갖추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중으로 국내외 유명 휴대폰 제조사의 차세대 핵심 스마트폰 10종이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내놓을 스마트폰 라인업은 ▲삼성전자 갤럭시S, ▲HTC 디자인어, HD2 ▲소니에릭슨 엑스페리아 X10 ▲모토로라 드로이드(북미출시명), XT800W ▲팬택 시리우스 ▲RIM 블랙베리 볼드9700 ▲LG전자 SU950 등 모두 10종이다.



KT의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라인업에서도 8종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할 정도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용 전용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콘텐츠와 사용자 혜택 확대에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토로라 업그레이드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하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 다양한 전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애플리케이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함께 안드로이드 OS 최적화에 힘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맞대결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둔 아이폰을 상대로 물량 공세에 나선 안드로이드폰 진영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OS는 공개된 지 2년 5개월 만인 현재 전체 10여개 휴대폰 제조사가 25종 이상 개성 있는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고 있다.

또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리케이션이 최근 3개월 동안 2배로 급증해 4만6000여개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드로이드폰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이폰과 맞서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스펙보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성장 여부가 중요하다. 또 아이폰 차세대 모델이 나오면 상황은 급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득·송영록 기자 lob13@

## 스마트폰 대중화 선언...차별화 전략으로 승수 차세대 먹거리 부상...음성중심 페러다임 바뀌

이 갖춰지면서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시장을 단번에 바꿔놓는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에서 스마트폰 전략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정책을 수립하고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폰 대중화'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반면 아이폰에 완패했던 안드로이드 진영도 총공세를 펴며 스마트폰 시장 재편을 노리고 있

는 전체 휴대폰 이용자 가운데 2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0%에 육박하는 수치는 시장 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계 분석이다.

통신업계가 스마트폰에 '음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보다 기업 대상 프로그램 유통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무선인터넷을 기본으로 활용하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KT는 스마트폰 출시 이후 근거리무선통신(WiFi) 이용자가 지난해 9월 대비 2.7배 급증, 연말까지 쿠파쇼즌(구 넷스팟)을 2만 7000여곳으로 확대한다.

지난달말 현재 KT가 전국에 구축해놓은 와이파이는 1만 3800여 곳으로 공항, KTX역사, 고속도로휴게소, 커피숍, 패스트

## SKT, 라인업 승부...KT, 서비스 강화 '맞붙' 통합LGT, 7~8종 선배...내년 4G 전략 승부

지난해 11월 KT가 애플 아이폰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바람 물결에 불을 붙이자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삼성 옴니아2에 5억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며 점유율 사수에 나섰다.

당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아이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1년 전 출시한 블랙베리 수요가 지지부진한데다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아이폰은 선풍적 관심에 힘입어 불과 6개월만에 50만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에서도 아이폰을 영업전략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등 스마트폰의 성공적 안착에 동참했다.

SK텔레콤의 옴니아2도 같은 기간 60만대를 돌파하며 수차례 대등한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기준 약 2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통신사로서는 스마트폰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통신시장에서 스마트폰 경쟁 2라운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미 KT와 SK텔레콤은 장외 신경전뿐만 아니라 전략 발표,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전선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포문을 나선 KT 이석재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망이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내 3G망은 얇은 포장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무선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지 않은 SK텔레콤이 많은 스마트폰 단말기를 보유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에 반해 KT는 10%가 3G망, 70%가 와이파이가, 20%가 와이브로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무선정책으로 트래픽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KT는 통신료를 종전 대비 90%가량 내렸다"며 "훌륭한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2분기 10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물량 승부'에 나선 것이다.



기종도 국내외 단말제조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라인업을 갖췄다. 안드로이드 OS를 중심으로 하반기 대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SK텔레콤이 발표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보면 안드로이드 OS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해 스마트폰 이용과 무선인터넷 사용을 확산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휴대폰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다양한 IT 기기에서도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금, 가입절차 및 요금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에만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 200만대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13년에는 25종 이상 스마트폰을 출시해 전체 단말기 판매에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SK텔레콤 MNO CIC 하성민 사장은 "다양한 단말기의 확산에 따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은 개방과 확산, 상생을 통해 무선데이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 후발주자로 그동안 3G 이동통신망에서 소외됐던 통합LGT텔레콤 역시 신규주파수 배정과 4G 상용화를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 반격에 나선다.

SK텔레콤과 KT가 선점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통합LGT텔레콤은 4세대(G) 투자를 본격화하며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올해 초 파워콤과 데이콤 합병 시 '탈통신'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윈도 모바일

OS 6.5를 탑재한 OZ옴니아(SPH-M7350) 출시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LG전자 윈도 모바일 OS 6.5 탑재 스마트폰 레일라(LG-LU2100)를 내놨다.

올해 7~8종 스마트폰을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수립 중이다. 우선 다음달 중에 LG전자 안드로이드 OS 기반 한국형 스마트폰 '이클립스(LG-LU2300)'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클립스는 웹캠의 고성능 1GHz CPU 탑재로 웹서핑이 빠르고, HD급 동영상 변환 없이 재생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함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차세대 이동통신(4G) 투자도 최근 방통위의 저대역 주파수 할당이 무난하게 통과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이동통신은 휴대폰을 통한 데이터 전송속도가 기존 3세대(하향 기준 최대 14.4Mbps)보다 3~6배 정도 빠르다.

향후 망 진화시 7배(고속 주행시 100Mbps)에서 70배(정지시 1Gbps) 이상의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다.

실제로 서비스 초기에는 700MB(메가바이트)짜리 영화 한 편을 불과 1분이면 내려 받을 수 있고 망 진화시에는 이론상으로 5~6초 정도면 가능한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통합LGT텔레콤 관계자는 "저대역 주파수 확보 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이동통신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통해 휴대폰과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업체, 그리고 콘텐츠업체 등 관련 통신산업 전반의 발전과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득 기자 lob13@

## 붓다와의 위대한 하루

절망적인 순간, 당신에게 찾아온 생애 최고의 하루

**소설로 읽는 인생과 불교 이야기**

고수유 지음 | 신국판 변형 | 11,000원

**'만야심경'의 참뜻과 그동안 우리가 찾아 헤맸던 삶의 의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쉽고 재미있게 담았다!**

오로지 교수가 되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홍진우. 하지만 하루아침에 꿈은 산산 조각나고, 실직자라는 이름과 빈 지갑만 남게 된다.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낯익은 이름의 문자 한 통이 도착한다.

**"홍진우 씨, 당신을 뵈고 싶습니다. 학교 앞 스타벅스에서 1시 반에 뵈겠습니다. - 붓다"**

# 스타부부 첫날밤 어디서 보낼까?

## 장동건-고소영 커플 '발리', 김성은-정조국 커플 '하와이'

'세기의 톱스타 커플'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달콤한 허니문을 보낼 장소로 발리를 택했다.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커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 중 하나로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장동건-고소영 커플은 결혼식을 마친 뒤 하룻밤 숙박비가 900만원에 달하는 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VVIP)에서 신혼 첫날밤을 보낸 후 다음날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발리의 명소 울루와뜨 절벽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약 4일 간의 휴식을 즐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여행을 마친 두 사람은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40여원을 호가하는 장동건 소유의 빌라에서 신집살림을 시작했다.

한 탤런트 김성은과 축구 스타 정조국 커플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 '신들의 섬' 발리

지난 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 '천혜의 자연' 하와이

스포츠스타와 결혼한 스타 커플들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여행지로 꼽히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100개의 섬으로 이뤄진 하와이는 섬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플랜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난달 결혼한 가수 슈와 농구 스타 임효성(인천 전자랜드)은 결혼 발표 당시 임신 사실을 공개, 속도위반 사실을 고백한데 이어 신혼여행도 미리 다녀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임신한 슈를 위해 결혼식전 미리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슈와 임효성은 서울 논현동에 신집살림을 차렸으며 오는 6월 출산할 예정이다. 축구스타 정조국(서울FC)과 결혼에 골인한 탤런트 김성은도 지난해 12월 하와이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 두 사람은 김성은의 드라마 촬영 일정으로 인해 결혼식 일주일만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김성은은 지난 4월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며 "현재 임신 3개월"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울 삼성동에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올 가을께 출산할 예정이다.

조승에 기자 sysy@

4·5월 연이은 톱스타들의 결혼 소식에 이어 그들의 신혼여행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웨딩마치를 올린 톱스타 장동건-고소영과 다음날 결혼한 이현경-민영기 커플은 달콤한 허니문을 보낼 장소로 '발리'를 선택했다. 앞서 4월 부부의 연을 맺은 가수 슈와 농구스타 임효성 선수, 1월 결혼



# 전도연 '하녀' 서 파격 변신

## 리메이크작 13일 개봉...에로틱 서스펜스 열연

한국 영화사에 스릴러 걸작이자 최고 흥행작으로 손꼽히는 故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년 개봉)가 리메이크작 '하녀'로 13일 재탄생된다.

'바람난 가족'의 임상수 감독과 전도연, 이정재, 서우, 윤여정의 화려한 캐스팅이 화제를 모은 '하녀'의 파격 티저 포스터가 지난달초 공개되면서 영화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영화는 올 1월3일 서울의 옥수역에서 주인공 '은이'(전도연 분)가 '훈'(이정재 분)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첫 촬영을 시작했다.

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선 전

도연은 특유의 존재감을 자랑하며 칸의 여왕다운 연기 내공을 선보였다. 전도연은 "너무 떨리고 실린다. 첫 촬영은 늘 긴장되지만 최종 리딩까지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함께 잘 해주기를 바란다"며 크랭크인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임상수 감독은 "첫 촬영 느낌이 매우 좋았고 이 작품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녀'는 상류층 가정의 하녀로 들어간 한 여자가 주인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파격적인 스토리를 그린 에로틱 서스펜스. 작년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공



개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故 김기영 감독의 원작을 바탕으로 임 감독이 연출을 맡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 MBC '동이' 돌풍...드라마 경쟁 초래

## KBS '국가가 부른다', SBS '자이언트' 10일 첫 선

MBC 창사49주년 특별기획드라마 '동이'가 시청률 20%대를 유지하며 월화극 왕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KBS와 SBS는 각각 새 드라마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동이'는 조선조 제 21대 영조 임금의 생모이자 19대 숙종(지진희 분)임금의 후궁이었던 천민 출신 여인 숙빈최씨(한효주 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유전과 아들 영조임금의 극적인 성장과정을 담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KBS는 '부자의 탄생'의 후속작인 '국가가 부른다'를 10일 첫 방송한다. 이 드라마는 김상경과 이수경, 류진, 호란이 주연을 맡아 사고뭉치 9급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특히 이수경은 극 중 사명감 하나 없는 오하나 순경 역을 맡는다.

그녀의 인생목표는 사고 뭉치 엄마와 잘 먹고 잘사는 것. 오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 경찰 배지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경찰신분을 적절히 활용하는 캐릭터다. 김상경은 이 드라마에서 엘리트 코스에 고속 승진을 거듭한 정보국 국제 범죄

1팀장 고진혁으로 변신한다. 그는 출중한 정보국 요원으로 투철한 사명감에 하고자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특성까지 가졌다.

SBS도 '제중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창사 20주년 대하드라마 '자이언트'를 이날 선보인다. 이 드라마에는 이범수와 박진희, 박상민, 주상우 등이 출연한다.

이 드라마는 1970년대 경제부흥기의 도시개발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욕망과 사랑을 그렸으며 경상남도 합천 세트장과 전라남도 곡성 등 전국각지를 돌며 촬영하고 있다. 최근 블록버스터급 예고편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범수는 극 중 1958년생 한강 건설 창업주인 이강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박진희는 이강모와 동갑내기로서 자아에 밝고 암안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황정준 역을 연기한다.

박태진 기자 tjippo@

# 다코타 패닝 성인 배우로 섹시미 발산

## 영화 '런어웨이즈' 출연...다음달 개봉

할리우드 스타 다코타 패닝이 아역배우의 이미지를 벗고 파격적이고 섹시한 성인 연기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아이 엠 샘', '업타운걸스', '벤 온 파이어' 등에서 순수하고 귀여운 소녀를 연기해온 다코타 패닝은 최근 영화 '런어웨이즈'에서 락밴드의 보컬 '체리 커리' 역을 맡아 성인 연기자로 나섰다.

영화 '런어웨이즈'는 락밴드 '런어웨이즈'의 멤버 조안 제트와 체리 커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그들 특유의 저항정신과 패기, 폭

발적인 열정을 담은 작품이다.

이번 영화에서 다코타 패닝은 짙은 스모키 화장에 파격적이고 섹시한 락제리룩을 선보이며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코타 패닝과 함께 주연을 맡은 크리스틴 스투어트는 조안 제트역을 맡아 보이시하고 터프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두 여배우의 파격적인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런어웨이즈'의 국내 개봉은 6월 24일이다.

조승에 기자 sysy@



# 김민정 '석회화건염' 완치...방송복귀



배우 김민정이 희귀병 석회화건염을 이겨내고 방송 활동에 컴백할 예정이다. 김민정 소속사 측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음을 밝힌 상태"라며

"가수 서인국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사랑해u'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김민정은 이준기와 함께 드라마 '히어로'에 캐스팅됐지만 희귀병으로 인한 심한 어깨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촬영중 하차했다.

김민정은 최근 '슈퍼스타K' 출

신 가수 서인국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사랑해 u' 뮤직비디오에서 서인국과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로맨틱한 키스신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석회화건염은 어깨관절에 석회(돌)가 생기는 병으로 화학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증이 매우 심하다.

조승에 기자 sysy@

# 걸그룹 에프엑스와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K-SWISS, www.k-swiss.co.kr)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전속 모델 에프엑스(f(x))와 함께 한 월드컵 화보를 공개했다.

다음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우리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카메라 앞

에선 f(x)는 케이스위스가 직접 제작한 '대한민국 응원' 티셔츠를 입고 다양한 응원 도구를 활용해서 특유의 상큼한 매력을 발산했다.

특히 멤버들은 붉은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붉은 약마 머리카락을 한 채 각각의 개성을 살린 월드컵 응원 패션을 선보였다.

f(x)와 함께 촬영한 케이스위스의 월드컵 화보는 전국 케이스위스 매장 및 지면 광고 등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광고 촬영장 현장 스케치, f(x)의 미공개 사진 등은 케이스위스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 11일 공개된다.

박태진 기자 tjippo@

**Drive it! BIGYARD**

신제품 출시 및 빅야드 탄생 20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잔치

기간 2010년 5월 1일 ~ 2010년 7월 31일  
경품 BIGYARD 골프볼, 중국 골프투어 여행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40년간 한국 고무산업을 선도해온 넥센, 생명을 지키는 타이어를 만들듯 넥센 빅야드는 스코어를 지키는 골프볼을 만듭니다.

한국 골프가 가는 길! 바로 넥센 빅야드의 길입니다.

FLASH-3PC, NXN-PRO, NXN-GOLD, FLASH-2PC

796-27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Tj02-595-9816 262-14 An-dong, Gimhae-city, Kyungnam, Korea Tj051-462-5001 www.bigyard.co.kr NEXEN 주식회사 넥센

# 환영철강 업계 6위 옛 명성을 되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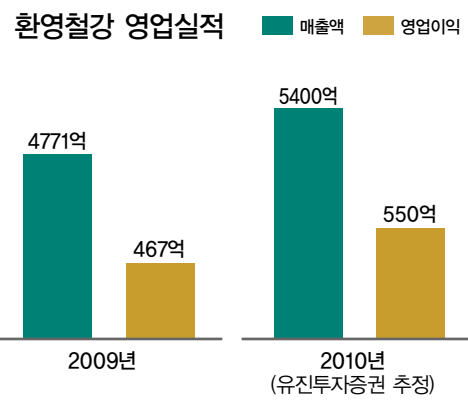
김영진 대표

철강 전문 제조업체인 환영철강공업이 5월 24~25일 공모주 청약 6월초 10년 만에 증시에 재입장한다.

KISCO홀딩스그룹(옛 한국철강그룹) 계열 환영철강공업은 최근 철강도시 충남 당진을 소재지로 건설, 토목용 자재인 철근 등을 생산하는 철강 전문업체다.

환영철강공업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제강공장과 압연공장을 통해 빌렛 및 철근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빌렛의 경우 80만톤, 철근의 경우 70만톤 규모다.

## 8년 만에 재상장...구조조정후 매출 200% 신장 창사이래 최대 영업이익...고부가가치 제품 인정



환영철강공업은 첨단 자동화 설비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개선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낮은 원가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매출액 6091억원을 기록하며 인수 당시 매출액 2552억원보다 200% 이상의 매출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4771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 시장 선도업체 위상 견고히 할 것

환영철강공업은 지난 1977년 설립돼 1989년 코스피에 상장했다가 2002년 상장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KISCO홀딩스그룹과의 M&A를 통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후 지속적인 설비투자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저원가의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환영철강은 불황기를 대비한 우량거래처와의 유대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거래처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의 변화 감지를 통한 적극적인 가격 및 공급정책을 통해 시장의 선도업체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환영철강은 제강공정시 회수를 향상을 위해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불순물을 최대한 억제하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설비합리화 및 사용연한에 따른 설비부품 교체로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구축하며 치밀한 생산계획을 통해 생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자의 운용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환영철강은 실제로 2008년 매출액 6091억원, 영업이익 743억원을 기록했고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4771억원, 영업이익 4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매출액 6091억원을 달성하며 2002년 인수 당시 2552억원 보다 238.7%이상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 ◇ 부채비율 13%대 안정적 구조

환영철강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내 철스크랩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철스크랩 국내구입 비율은 93.1%(2008년 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구매비율을 자랑한다.

환영철강의 국내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공급관리는 시장 변동시 구매정책의 신속적인 반영으로 구매 경쟁력을 강화시켜왔으며 기

존의 공급처들과의 긴밀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관계회사인 한국철강과 보다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중계위탁판매를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철스크랩의 품질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수전문업체의 외주용역을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검수업무를 통해 철스크랩의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원료를 확보해 조업성 및 원가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팀을 주축으로 공병별, 자체별 목표원단위를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제조원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기로공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급 철스크랩의 활용도를 점차 높여 나가고 있으며 일반 자재관리의 경우 입출고 시스템을 강화하는등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환영철강은 현재 국내에 상용화되고 있는 전 품종 및 전규격의 생산이 가능해 수요가의 어떠한 주문요청에도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철근의 경우 소비품목이 한정돼 있어 기술개발 방향이 신제품 개발이 아닌 효과적인 조업방법의 연구, 생산체제의 연구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원가경쟁력 확보에 맞춰져 있다.

품질 보증팀의 공정반 조직을 통해 생산체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로 일회대 가동횟수는 30HEAT/일 수준으로 동종업체 상위수준이다.

2004년에는 수냉철근설비를 도입해 기존의 빌렛공정시 투입되던 부재료인 Fe-V의 사용을 제거함으로써 획기적인 원가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이밖에도 철원(철스크랩)의 전기로내의 배합비, 대체재등을 연구해 보다 내실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환영철강의 2008년 사업연도 기준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은 6.6% 수준으로 업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환영철강공업은 5월12~13일 수요예측과 5월24~25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6월초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한화증권으로 공모희망가격은 주당 2만7000~3만2000원(액면가 5000원), 공모예정금액은 756억원~896억원, 공모주식수는 280만주다.

상장 전(2009년말 기준) 총자산은 3434억원, 자기자본은 303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3.08%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 ◇ 중국시장서 고성장 발판

환영철강은 1996년 12월9일 당진공장 완공이 2년간 늦어지면서 생산력 저하 및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자금유동 문제발생, 전문 인력 부족,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요인으로 부도가 발생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를 추진해 KISCO홀딩스그룹(옛 한국철강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환영철강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2001년 하반기부터 건설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회복세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수급불균형이 해소됐다.

특히 중국의 건설 수요 활황세가 원재료 및 판매 제품에 영향을 주면서 고성장세가 시작됐다.

이에 2008년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과 고 설비유지 및 보수 및 자동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SD5000의 KS인증을 받는데 성공해 시판에 돌입했다.



환영철강은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 6.6% 수준(2008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근산업의 경우 상위 7개사가 92%(2008년 판매량 기준)이상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의 신설을 통한 생산량증가가 없는 경우 매년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철근산업은 과점형태의 시장으로 업계 선두그룹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의

경우 시장점유비가 60%가 넘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순서에 따라 가격, 수급계획 등 해당산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에 환영철강은 관계사인 한국철강과 중계위탁판매를 전략적으로 시행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유지하고 있다.

오하나 기자 hnah@

## 애널리스트가 본 환영철강

김경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원가경쟁력 우수...하반기 수익성 호전



환영철강의 주요주주는 KOSCO 홀딩스다.

지난 2002년에 당진공장건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한국철강에 인수됐는데 한국철강은 10%, 환영철강은 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환영철강의 강점은 원가 경쟁력이 경쟁사 대비 우수하다는 점이다. 규모가 작다 보니 가격이 싼 국내고철투입비중이 높아 원가경쟁력이 높고 재고부담감소와 신속한 고객대응이 우수하다.

공장이 당진에 위치해 물류비 절감으로 철근수요가 높은 수도권 판매에 유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재무구조가 우수해 2009년 부채비율이 13%로 업종평균 90%대보다 매우 낮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개선

이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내 철근업은 상승단계에 있어 계절적 변동성과 건설경기 움직임에 크게 좌우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철근업 수익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철근수요가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원재료인 고철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사들의 가격인상 반발에도 국내 재고감소와 국제 철근가격상승으로 철근 가격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자금으로 환영철강은 당진에 제2산소공장을 건설해 안정적인 매출증대를 꾀할 예정이다.

다만, 상장 후 주식 유동성이 작은 게 흠으로 유동성확보전략이 필요하다.

**“꿈의 59타에 당신도 도전 할 수 있습니다.”**

최전라를 향한 프로골퍼들의 열망!!

YES 59 드라이버가 해결해줍니다.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본골프계의 장인이 '인정'을 기술에 제정신 KJ GOLF의 YES 59 드라이버입니다.  
40여 골퍼들을 위해 탄생 되었습니다.

**[ 59타를 기록한 선수 ]**

2001년 스벤드트 레이저 피팅회 - 애니카 소렌스탐  
1999년 밥 호프 크리에이터 클래식 - 데이비드 듀발  
1991년 라스베가스 인비테이셔널 - 짐 맥  
1977년 펠릭스 클래식 - 알 기어버

**20YARD 더 나가는 장타 드라이버**  
**KJ59 DRIVER**

Mamiya ATTAS, AXIV-X 스포츠 더욱 안정감을 높인 KJ 59 드라이버

- ▶ 460cc의 대형헤드와 에그지움로 임팩트 시 헤드의 충동을 억제하여 보다 좋은 방향성 실현.
- ▶ 초고반발 신 특수 티탄 합금을 장착하여 호쾌한 비거리를 실현.
- ▶ 크라운부 일러를 후면 그라데이션 처리하여 고공스핀 이미지.
- ▶ 남성용 스포츠를 2010 카타로그 제품인 Mamiya ATTAS 스포츠 전용.
- ▶ 여성용 스포츠를 2010 카타로그 제품인 Mamiya AXIV-X 스포츠 전용.
- ▶ 4축 직렬을 채용하여 손이 닿는 부분의 강성을 높이고 스윙 중 생기는 변형을 줄임.
- ▶ 힐과 비틀림 강성의 조화로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성능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겸비.
- ▶ 남성용 그림 : 골프라이드 예스오리지널리버모델, 여성용 그림 : 이오믹 밀키핑크모델

YES KJ59 FAIRWAY WOOD

www.kjgolf.net

신세계백화점 본점(02)310-1538 강남점(02)3479-1532 영등포점(02)2639-1536 경기점(031)695-1845 인천점(032)430-1536 부산센텀시티점(051)745-1823 마산점(055)240-1406 광주점(062)360-1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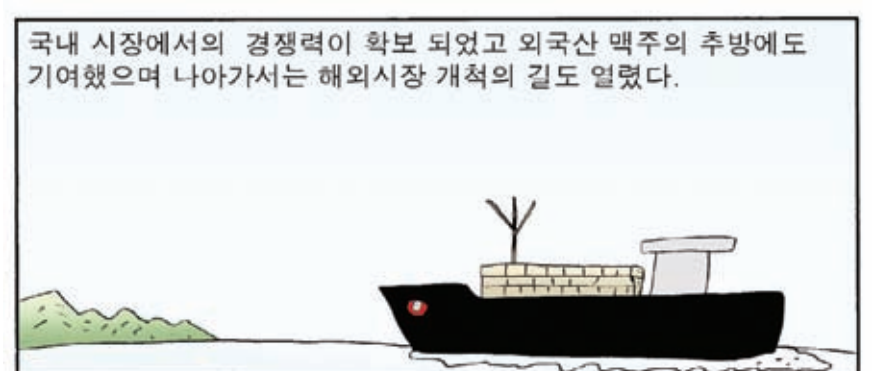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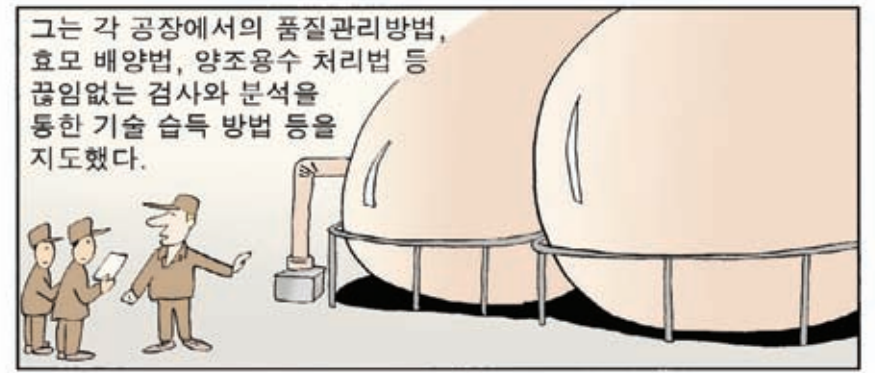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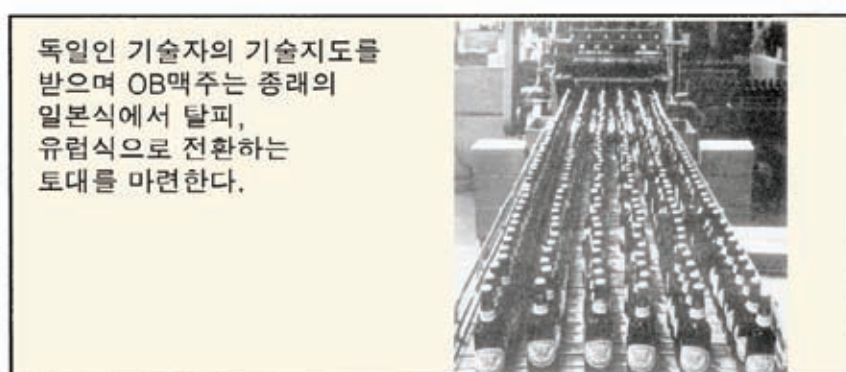
화이팅! 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연강 박두병 <제 13화 맥주 전쟁> 글·만화 유영수

"우리는 하나의 단계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생성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에 기존의 질서에만 안주해서는 적응력을 잃어버린다. 항상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만이 안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강 박두병 회장이 자주 인용한 헤르만 헤세의 말)



##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이투데이

이투데이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투데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이투데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이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 페라리 넘보는 '스피라'의 창조자

### 김한철 어울림모터스 사장

지난 3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는 자동차업계에서 나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내 최초의 카로체리아(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수공업 생산을 하는 자동차 공방)를 꿈꾸며 매진하던 수제 스포츠카인 '스피라'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던 날이었다.

이로써 국내에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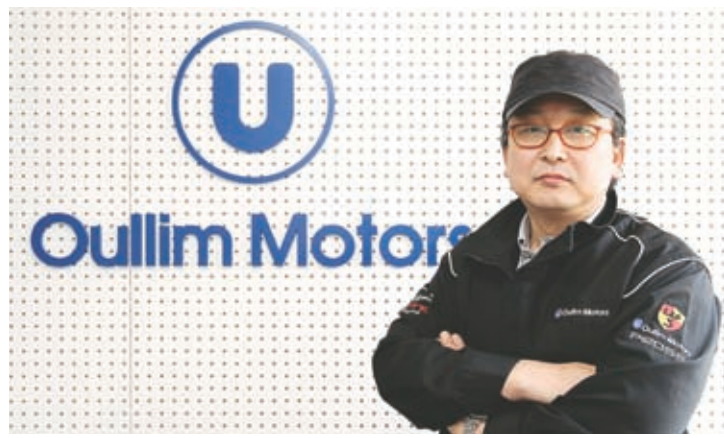
'스피라'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기존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대량생산과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스피라'는 1대 제작에 일주일씩 걸리고 직접 인도 받기까지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100% 주문형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피라'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와 같은 수제 전문 브랜드를 가지게 됐다

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날 '스피라' 런칭 행사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이 날을 기다려왔고, 꿈꿔왔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스피라'를 처음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스피라'의 아버지, 어울림모터스의 김한철 사장이다.

"스피라는 지난 1999년도 처음 개발에 들어갔었죠. 원래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최종 목표는 자체 고유모델을 가지게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라였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만들어 냈던 유럽처럼 우리도 수제 스포츠카를 자체 기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시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일 줄 알았는데, 어울림모터스를 만나 이렇게 빨리 스피라의 탄생을 지켜볼 줄은 몰랐네요."

김 사장은 현재 어울림모터스의 사장이지만, 그의 본직은 자동차 디자이너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태리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귀국한 이후, 쌍



용차에 동지를 틀었다. 쌍용차의 신호로 이끌었던 '무쏘'가 바로 그의 대표작 작품이다. 여기서 그는 평생의 반려자이자, 사업 파트너인 최지선 사장(어울림모터스 공동 사장)을 만나게 된다.

이후 1991년 기아차 연구사로 옮겨다가 1994년 부인과 함께 자동차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토(PROTO) 자동차'를 설립해 독립하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모터쇼에 출품하기 위한 콘셉트카 주문이 많았

죠. 양산 계획에 없는 연구개발용 자동차나 콘셉트카들은 모두 의주를 했으니깐요."

하지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법. 그는 항상 품으로 생각해왔던 수제 스포츠카의 작업에 예상보다 빨리 뛰어든 것.

그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 자동차 마니아들의 꿈이 돼 버린 것처럼, '스피라'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수제 브랜드이자 자동차 마니아들의 '드림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

# 안랩, 김수진 씨 초대 CMO로 영입

### 한컴 대표 출신...소프트웨어 리더십 강화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6일 초대CMO(Chief Market in g Officer, 최고 마케팅 경영자)로 한글과 컴퓨터 대표

신성장 비즈니스 발굴 및 기획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안철수연구소가 CMO를 도입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CMO 체제를 갖춰 스마트폰 열풍으로 촉발된 글로벌 IT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무는 전자 통합 브랜드 마케팅 전략 총괄, 증강기 제품 로드맵 및 제품전략 수립 및 실행,

김 전무는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삼성유희패캐드등 유수의 IT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걸쳐 20년이 넘는 폭넓은 업무 경험과 탁월한 기획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 개척에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안철수연구사 전략사업인 스마트폰 관련 사업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진 전무는 "사업 비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만이 지속적인 신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동안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회사가 '증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근득 기자 lab13@

# 제18회 중외박애상 이성식 원장 선정



중 외 제 약 (회장 이종호)은 제18회 중 외 박 애 상 수상자로 이성식 소하아 동병원 병원 장을 선정했

다고 밝혔다. 이성식 원장은 지난 1979년 연세대의대를 졸업한 후

연세의료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래 30여년 동안 사람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참된 인술을 베풀고 소아전문 의료인 양성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소하아동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튼튼한 어린이를 길러내는 것이 곧 국가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극심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미숙아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매년 소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원내 음악회 개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 의학과와 개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환우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곽도훈 기자 sogood@

# "머크는 한국 R&D 파트너"

### 괴닉 한국머크 사장



세계 최대 액정 제조업체인 머크가 지난 2년간 14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포성에

오픈한 첨단기술센터의 4층은 텅 비어있다. 4층에는 대신 '퓨처 익스텐션(Future extention)'이라고 써여 있는 팻말이 걸려 있다.

괴닉 한국머크 사장은 "현재 4층은 향후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 비어 있는 상태"라며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LCD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고객으로 둔 머크가 이들의 의견을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들이 원하는 액정 원료를 앞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공간인 것.

괴닉 사장은 "액정소재를 만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모두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며 "고객의 니즈를 위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해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머크는 한국을 R&D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며 "포성의 R&D센터는 '고객중심'이라는 머크의 전략을 실현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액정이라 LCD TV와 모니터, 휴대폰 화면 등을 만드는 디스플레이 이 패널에 들어가는 주원료다. 휴대폰 화면을 흔히 액정 화면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30인치 LCD TV 기준으로 약 2g의 액정이 들어간다. 액정 1g 가격은 8000원 정도로 알려졌다.

괴닉 사장은 "3D TV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TV는 과거와 다르다"며 "고객에 따라 원하는 액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액정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드라마를 잘 표현하는 TV가 있는가 하면 스포츠처럼 활동적인 화면을 잘 표현하는 TV가 있듯이 고객 니즈에 따라 액정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괴닉 사장은 이번 첨단기술센터 개소의 의의를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R&D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머크의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송영록 기자] syr@



# 한화,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가족 초청

한화그룹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6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 80여명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초청해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환자 어린이들은 간병하느라 고생해온 부

모님들을 위해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달아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와 함께 연간 40명 내외의 희귀질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kj@

# IBC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

### 중앙대 정영복 교수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정형외과 정영복 교수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 센터(IBC)가 선정하는 '2010년 세계 100대 의학자(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10)'로 선

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무릎관절 및 십자인대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정 교수는 특히 후방십자인대(PCL) 손상의 수술 및 치료 성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관련 심포지엄을 10여 년째 진행 중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

# 김정남 씨 동부화재 사장 취임



동부화재는 지난 3일 김정남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동부화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통해 김정남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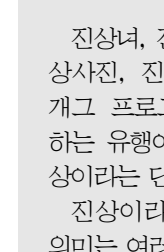
신임 김정남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979년 동부그룹에 입사했으며 1984년 동부화재에 합류해 보상, 영업, 신사업, 기획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쳤으며 2009년부터 개인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날 김정남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의 보험환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채널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손해율 관리를 통한 수익 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순환 부회장은 6월 주주총회 이후 그룹 내 다른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장해리 기자 healee81@

# 기자수첩 이승환 기자

# 증시의 진상(進上)을 기대한다



진상녀, 진상남, 진상댄스, 진상사진, 진상캠(진상캠핑)등 개개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진상이라는 단어다.

진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진상(進上)은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침, 또는 허물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나 그런 물건을 뜻한다.

둘째로 진상(眞相)은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이 '참된 모습'으로 순화할 때 사용한다.

셋째로 진상(眞想)이란 참된 생각을 말하고 진상(眞像)은 진짜 모습 그대로의 형상을 의미한다.

또 진상(陳狀)은 일의 사정이나 상황을 말하며 진상(塵想)은 속된 생각 또는 세속의 잡념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검사 함용 접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등

개개 소재만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진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진상(進上)받은 진상(進上)검사들의 진상(眞像)을 규명하는 진상(眞相)조사단이 발족된다니, 이 시대에 진상(眞想)을 가진 이들은 있는지 진상(陳狀)을 두고 볼 일이다.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4월28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35개사 중 30개사가 결국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진상(眞想)을 갖고 진상(陳狀)을 제대로 파헤쳐 봐야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코스닥시장에 진상(進上-허물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그런 물건.) 상장사만이 남을 것이다. 가족이나 힘든 세상살이에 더 이상 진상(塵想)에 빠지고 싶지 않다.

lsh@etoday.kr

**BRAND STAR**  
2010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Korea's No.1 for Brand Value

## 당신의 체중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신발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스크린 골프·산책·레저를 하나로 - 잔디로 가벼운(輕量) 레저화 출시!

소재 : 영국수입 피타드 천연가죽 사용(방수 발수 기능 탁월)  
인솔 : 4겹의 관절보호 천연가죽 인솔(공팡이, 발냄새 억제)  
아웃솔 : VPS 공법의 아웃솔은 가볍고 안정감과 접지력이 우수함

- 한국인의 족형에 맞는 설계로 장시간 서 있거나 보행에도 편안함 보장.
- 방수 발수 기능이 탁월한 영국수입 피타드 가죽을 사용하여 쾌적함 보장.
- 일반화에 비해 천연가죽 신발은 수명이 길며 오래 신을수록 내발에 맞게 길들여지는 최상의 착화감 제공.
- 4겹의 천연가죽 안창은 신발속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발냄새 및 관절보호.

해외 골프투어 선호도 1위 - 잔디로 레저화  
Style No. : 1925-01(Black) 1925-02(Brown)

구입문의: 02)2632-2250 www.jandiro.com 의류대리점 모집: 02)6909-8826

■서울(02) 강남점 6909-8800 목동점 2608-7400 김포공항점 2662-9966 보문점 928-9900 ■경기(031) 여의점 917-4545 김포장기점 997-2030 죽전점 276-1135 신원점 393-3258 이천점 635-5235 평택안중점 264-1530 포천점 544-9772 ■인천(032) 부천상동점 610-4555 ■강원도(033) 원주점 763-9820  
강릉점 653-2114 ■충남(041) 천안점 572-3798 ■대전(042) 대전점 484-9696 ■충북(043) 청주점 232-7519 청원점 260-5556 ■부산(051) 부산점 517-2525 ■경북(054) 칠곡점 973-0700 ■경남(055) 창원점 286-7887 김해점 320-9749 ■전남(061) 광주서정점 371-1150 목포하당점 287-0806  
■광주(062) 광주용봉점 511-0014 ■전북(063) 전주점 276-5000 군산나은점 443-5005 ■레저화 취급점: 구기점 02)395-1126 서대문점 02)351-3730 여의도점 02)780-7444 상계점 02)3392-3869 중구점 02)2002-5458 신당점 02)2232-3220 중남점 02)433-8686 계산점 032)556-1248

(주)오뚜기 창립 41주년 기념

# 우뚝서자, 오뚜기민족!

우리민족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도 굴해본 적 없는  
 오뚜기민족.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더 힘을 모아 결국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정신.  
 우리의 내일이 희망적인 것은  
 우리 모두 굳게 믿고 있는 오뚜기 민족의 저력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뚝 일어섭시다.  
 우리민족은 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높은 영양, 보다 앞선 식품으로  
 국민 식생활 향상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기업



주식회사 **오뚜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오뚜기센터  
[www.ottogi.co.kr](http://www.ottogi.co.kr)